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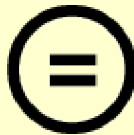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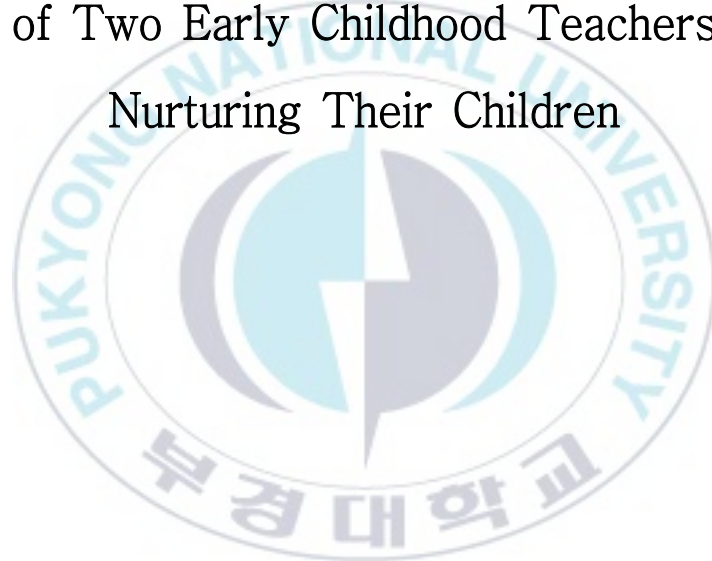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엄마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

－ 영유아교사 두 명의 교직생애를 중심으로－

Life Histories about the Experienced Difficulties
of Two Early Childhood Teachers
Nurturing Their Children



2017년 6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이 황 순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엄마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

－ 영유아교사 두 명의 교직생애를 중심으로－

Life Histories about the Experienced Difficulties
of Two Early Childhood Teachers
Nurturing Their Children

지도교수 이 경 화

이 논문을 석사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6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이 황 순

이황순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6월



위원장 문학박사 권연희 (인)

위원 교육학박사 황희숙 (인)

위원 교육학박사 이경화 (인)

목 차

표 차례	iii
그림 차례	iv
Abstract	v
국문초록	ix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II. 이론적 배경	7
1. 영유아교사의 역할	7
2. 영유아교사의 삶	9
3. 생애사 연구	13
III. 연구방법	17
1. 연구 동기	17
2. 연구 참여자	19
3. 자료 수집	23
4. 자료 분석	26

IV. 두 엄마 영유아교사의 교직생애	29
1. 흥교사	30
2. 이교사	52
V. 두 엄마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의미	72
1. 나는 3D직업, 영유아교사다	72
2. 임신과 출산의 강요된 침묵	78
3. 엄마와 교사의 경계	82
4. 정책담론에서의 소외	89
VI. 논의 및 결론	100
1. 요약 및 논의	100
2. 결론	107
참고문헌	109
부록-연구 참여 동의서	116
감사의 글	117

표 차례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19
<표 2> 인터뷰 과정	24



그림 차례

[그림 1] 홍교사 삶의 궤적	30
[그림 2] 이교사 삶의 궤적	53



Abstract

Life Histories about the Experienced Difficulties of Two Early Childhood Teachers Nurturing Their Children

Lee, Hwang Soo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narratives of two mother-teachers working by focusing on their difficulties while working in a kindergarten or a day care center and interpreted the meaning of life of mother-teachers who raise their children in these days.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ir lives and hardships experienced as mother-early childhood teachers, providing practical implications for teacher education and teacher polic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et up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What is the meaning of difficulties as a mother-early childhood teacher through the teaching career life history of Mrs. Hong and Mrs. Lee?”

The narrative methods among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ere used in this study. The stories of Mrs. Hong and Mrs. Lee working in a kindergarten and a day care center respectively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throughout seven interview sessions.

The ideas after interviews were written in the form of reflective journals. The research attempted to add her own experiences and reflect herself with the researcher's journal per each session, keeping the balance in data collection and data interoperation. Moreover, the researcher tried to demonstrate the narratives of the two mother-teachers' semantics of experiences in texts composed of individual and unique events. Based on these texts, their narratives were classified into the themes according to the events and time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which were divided into inter-subjective subjects. The researcher collected the semantic texts of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the two teachers, and conducted a qualitative analysis that inductively derives the subjects through hermeneutical reading. The analysis result according to the research question is as follows.

Above all, the themes were divided into the life history of the two mother-teachers and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them so that the key words including 'I have a 3D job, an early childhood instructor', 'the forced silence of pregnancy and childbirth', 'the boundary between mother and teacher', and 'the alienation from policy discourse' were deduced, which implied the meaning of difficulties experienced by the two mother-teachers, Mrs. Hong and Mrs. Lee. First, a mother-teacher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was recognized as a 3D job. For Mrs. Hong and Mrs. Lee, revealed such low job consciousness when experiencing marriage, pregnancy, miscarriage, turnover, and retirement. Second,

they were forced to silence. Getting married, pregnant, giving birth and raising children led them to give up their work. The suppressed femininity could be seen in their lives. Third, they stood at the boundary between a mother and a teacher. They played a role as an instructor in the educational field and did their best as a professional; however, they experienced a double burden of not having enough energy to take care of their own children when returning to home. Fourth, it was found how mother-teachers were marginalized from research and policy discourse on mother-teachers. Welfare policies for them should be offered with institutional resources. Next, the difficulties of Mrs. Hong and Mrs. Lee showed the following two aspects regarding the lives of the mother-teachers working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s. First,, caring, nurturing, and teaching children have been perceived as woman' s work from a traditional point of view, a woman who is also a mother tends to experience stress and burn-out while working as a teacher at the same time. Second, they hope for receptive and positive future even they ponder over the best choice in their daily lives and giving up for childre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arratives of two mother-teachers described the lives, worries, and conflicts of married early childhood teachers with children: the self-esteem as a teacher and responsibility as a mother, and their position and reality felt like other beings rather than an integrated existence. Although they also had strong will

and vitality to overcome such challenges, they were excluded from policy and social consideration.

Second, the married early childhood teachers with children expected the government policies for work-family balance or alternatives and wanted to find the appreciated position of a proud ‘mother-teacher’ . Therefore, the society should pay attention to the teachers’ treatment and welfare, and the relevant policies should focus on teachers in the actual fields, not lawmakers, with the field-oriented alternatives prepared. The institutional supplement for mothers and teacher training for enhancing the professional competence that mother-teachers can offer is required as well.

Key words: career life, married early childhood teacher with children, the difficulties of mother-teachers

국문초록

엄마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

— 영유아교사 두 명의 교직 생애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 경 화

유아교육학과 이 황 순

본 연구에서는 두 명의 엄마교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근무하면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오늘날 자녀를 키우고 있는 영유아 엄마교사들의 삶의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엄마교사로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엄마교사의 삶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사교육 및 교사정책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홍교사와 이교사의 교직 생애를 통해 본 엄마 영유아교사로서의 어려움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자는 질적 연구 방법 중 생애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각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홍교사와 이교사의 이야기를 7회의 인터뷰를 통해 녹취하고 녹취록을 전사하였다. 인터뷰 후 소감을 반성적 저널 형태로 기록하였다. 각 회별 연구자 일지를 통해 연구자 자신의 경험을 더하여 반성하고, 자료 수집, 자료 해석 등에 균형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두 엄마교사의 이야기를 개인의 사적이 사건들과 독특한 사건들로 구성되는 텍스트에서 체험이 갖는 의미 주제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텍스트를 통하여 교사 개인의 이야기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사건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제화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간주관적 주제들로 묶고, 두 교사가 경험한 어려움의 의미 텍스트를 수집하고 해석학적 읽기를 통해 귀납적으로 주제를 도출하는 방식의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두 엄마 영유아교사의 생애와 두 엄마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주제를 나누고, ‘두 엄마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의미’에서 ‘나는 3D직업, 영유아교사다’, ‘임신과 출산의 강요된 침묵’, ‘엄마와 교사의 경계’, ‘정책담론에서의 소외’와 같은 주제어를 도출하여 홍교사와 이교사 두 엄마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첫째, 유아교육기관의 엄마교사는 3D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홍교사와 이교사에게 결혼과 임신, 유산, 이직 및 퇴직을 경험함에 있어 이런 낮은 직업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둘째,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하여 자녀를 키우는 일은 나의 일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홍교사와 이교사의 생애를 보면서도 이런 여성성이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엄마와 교사의 경계에 서있다. 엄마교사로 역할하며 기관에서 인정받고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내 자녀에게 까지 쏟아야 할 에너지가 없는 이중부담이 존재한다. 넷째, 엄마교사가 교사연구와 정책담론에서 얼마나 소외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엄마교사에 대한 복지 정책이 엄마교사로서 살아가는 지원이 되고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이교사와 홍교사의 어려움을 통해 영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엄마교사들의 삶에 관해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다시 떠올려 볼만한다. 첫째,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일로 인식하기에 엄마인 여성이 교사의 직업을 병행함으로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한다. 둘째, 엄마교사들은 자녀를 위한 포기과 현실의 삶에서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면서도 수용적이며 긍정적인 미래를 꿈꾼다.

다.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 자녀가 있는 기혼 영유아교사의 생애는 교사로서의 자존감과 더불어 엄마로서의 책임감, 같은 존재이지만 다른 존재처럼 느껴지는 위치와 현실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다. 엄마교사들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자아의지와 생활력 또 한 가지고 있지만, 정책과 사회적 배려로부터 소외되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자녀가 있는 기혼 영유아교사는 정책적 문제나,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대안들에 기대하며 인정받고 뿌듯한 ‘엄마교사’의 위치를 찾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교사의 처우와 복지에 대해 귀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하고, 정책이 기안자 중심이 아니라, 현장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 몸담고 있는 교사들을 향하기를 바란다.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대안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엄마로서의 제도적 보완과 교사로서 엄마교사가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교육 또한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교직생애, 자녀가 있는 기혼 영유아교사, 엄마교사의 어려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는 결혼을 하고 휴직하며 자녀를 키우다 원래 근무하였던 유치원에 복직하게 되었다. 물론, 육아휴직이 아니라 퇴사 하었다가 재진입한 것이었다. 사립유치원에서 결혼한 교사가 근무를 하는 경우나, 육아휴직 후 재진입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시절이었다. 지금도 정책이나 복지를 많이 개선하여 더 나은 대우와 근무환경이라고는 하지만, 유치원 교사의 결혼과 자녀를 키우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은 남은 숙제 같은 느낌이다.

(연구자 일지 중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자녀 양육과 교직을 양립하며 엄마교사¹⁾로 산다는 것은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영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며 엄마교사로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돌보는 일은 선택과 포기의 연속이다. 엄마가 된 영유아교사들은 엄마와 교사라는 두 가지 역할의 갈등에서 오는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내 몸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자각하고, 내가 아닌 아이를 중심을 한 새로운 관계망들이 생성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정경수, 임부연, 김경애, 2016).

최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일을 하는 경제 활동 연령이 높아지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경력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유가 결혼(63.4%), 임신 및 출산

1) 본 연구에서 '엄마교사'라 함은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교사를 의미한다.

(24.7%), 가족 돌봄(4.9%), 미취학 자녀양육(5.9%), 취학 자녀교육(1.1%)순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대부분 여성들의 경력 단절 원인은 결혼과 출산 혹은 양육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하지수, 2017). 특히 영유아 교사의 경우, 정부가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를 도와주더라도 그러한 보육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기혼 영유아교사들이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는 물론이고 법적으로 보장 되어 있는 권리조차 보호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구자영, 이대균, 2013). 2017년 2월에 발표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결혼 및 출산 이 교사의 퇴직 및 해임의 가장 큰 사유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통계 자료(2015.04.02-2016.04.01.)에 의하면, 퇴직한 교사 중 유치원 여교원은 7,948명이며 그 중, 공립 유치원교사는 139명, 사립유치원 교사는 7,809명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퇴직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퇴직의 사유 중, 결혼이 221명이며 사립유치원 교사가 전체 221명으로 100%를 차지하고 있다. 이직으로 인한 퇴직은 전체 2213명 중, 공립유치원은 1명이며 사립유치원은 2212명으로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으로 구자영과 이대균(2013)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립 유치원 교사에 비해 열악한 근무 환경과 지원 등으로 심리적 소진의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으로 추측하였다.

이직의 원인을 개인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유아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면의 심리적인 갈등, 육체적 고갈과 소진에 있다(박봉환, 2017).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제한된 근무환경과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유아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지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가적인 유아교사에 대한 인

식 개선과 중요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사립유치원의 교사들은 보통 하루에 열 시간 반 이상을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나 차량 등 모든 업무를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더욱 긴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고미경, 류숙희, 나정, 2006). 유아교사의 이직 의도를 살펴보면, 과중한 업무시간과 낮은 급여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초래되고, 정책적 지원 부족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지나친 요구 등으로 인해 다양한 직무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누적된 스트레스는 소진 상태에 이르게 된다(박봉환, 2017). 이러한 현상은 비단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재정적으로 열악한 구조에 놓여 있는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지금까지 보고된 영유아교사에 대한 주제들을 살펴보면, 직무만족, 직무 스트레스, 교사 효능감, 교사교육, 소진, 이미지, 교사인식, 사회적 지지, 행복 등의 키워드가 가장 높은 빈도로 연구되어 왔으며, 최근 5년간 유아교사관련 연구 동향에서는 직무만족과 직무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직무 만족과 직무 스트레스는 서로 관련성이 높아 영향을 주고 받는다(정혜영, 손유진, 2015).

특히, 기혼의 자녀를 기르고 있는 유아교사들(이하 ‘엄마교사’)은 엄마와 교사라는 두 가지 역할의 갈등에서 오는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내 몸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자각하고, 내가 아닌 아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계망들이 생성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먼저 생각하는 것과 중요시 하는 것의 관점의 변화가 있을 뿐 아니라 생활의 패턴변화 또한 자녀와 가정을 중심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소진과 개인 시간이 가정을 위한 시간으로 대신 한다든지 가족을 위한 살림과 집안일로 대체되는 경우가 거의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정경수 외, 2016).

최근 발표된 엄마교사의 삶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엄마됨을 경험한

교사들은 교사로서 살아감과 동시에 임신과 출산, 양육을 몸소 겪는 엄마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음을 고백하였다. 교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엄마의 역할과 책임에 소홀해지거나 엄마와 교사의 자리에 대한 역할 갈등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정경수 외, 2016). 엄마-유아교사들은 대체 불가능의 막중한 책임과 탈 은폐된 양육의 일과 가치, 나를 넘어서게 하는 힘을 발견하는 체화된 경험을 통한 어려움과 동행하는 엄마교사로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였다(정경수 외, 2016).

영유아교사에 대한 선행연구 중, 기혼 유자녀 유아교사대상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임정희, 최형성(2016)은 24개의 논문을 분석하여, 교사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함께 하는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더 많은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교사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은 모두 높은 수준의 에너지가 요구되는 역할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직장인의 역할과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라는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혼 유자녀 유아교사에 대한 연구와 그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장점 신장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임정희, 최형성, 2016). 그러나 엄마교사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삶을 탐구하는 질적 연구는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주제로 엄마교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엄마교사들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듣고 그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엄마교사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론으로 생애사 연구를 들 수 있다. 생애사 연구는 참여자의 목소리를 통해 일련의 현상을 탐구하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이다(Goodson, 1992). 생애사 연구는 면담을 통해 수집한 구술 자료를 해석한 결과를 삶

의 이야기로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으로(김영천, 한광웅, 2012), 개인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일차적인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는 동시에, 특정 현상의 본질을 개인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로 기술하는 특성을 지닌다. 즉 생애사 연구는 참여자와 구술면담에 의해 삶의 이야기를 탐색하는 것이다(김영천, 한광웅, 2012). 시간의 축을 중심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엄마교사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그 삶의 의미를 맥락적으로 읽어내는 데는 이러한 생애사 연구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자신의 직업을 전문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교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며 가지는 여성성이라는 강한 정신적 자원이 오히려 교직을 위협하는 요소로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이 엄마교사의 현주소이다. 사회적 기대와 편견으로 뒤틀려진 여성의 모습에 이 땅의 유아교사들은 돌봄과 해방 페미니즘 담론이 역설적으로 공존하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보육과 교육이라는 어려운 사회적 기대를 끌어안고 수용하는 넉넉함을 지닌 생명의 상징이고 힘든 상황에서도 더 나은 자아를 위해 꿈을 꾸는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교사들(임부연, 최혜림, 2006)로 더욱 발돋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유치원과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엄마교사인 홍교사와 이교사, 두 사람의 교직생애를 통해 엄마교사들의 삶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특히 엄마교사로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근무하면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오늘날 자녀를 키우고 있는 영유아 엄마교사들의 삶의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엄마교사로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엄마교사의 삶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사교육 및 교사정책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홍교사와 이교사의 교직 생애를 통해 본 엄마 영유아교사로서의 어려움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영유아교사의 역할

영유아교사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돌봄과 가르침이 그것이다. 먼저, 영유아교사의 역할 중 가장 우선적인 것은 ‘돌봄’이라 할 수 있다. 영유아교사로서 돌봄을 실천하는 일은 당연한 행위이며, 교육하는 것은 학생들의 연령에 관계없이 돌보는 행위다. 영유아교사는 돌봄을 실천하는 자이며 돌봄으로 관계를 맺고 교사로서 역할 한다. 돌봄은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돌봄이란 속성이 아니라, 우리가 열중하는 어떤 것,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다. Noddings(1984;17)는, “나의 최초이자 끝이 없는 책임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one-caring)으로 만나는 것이다. 돌봄의 만남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간의 상호작용이다(Goldstein, 2001).

영유아교사는 유아교육이 가지는 여성적 특수성으로 인해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데서 기인한 일을 마땅히 실천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이 돌봄의 역할을 한다(임부연, 최혜림, 2006). 돌봄을 실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유아들을 돌보는 자로 성장하게 하는 것에 있다면 교사가 주변의 사람들과 돌봄의 관계를 맺는 것은 필수적이다. 교사가 우선 타인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돌봄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료 교사, 부모, 원장과 인격적인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돌봄을 유아교사의 전문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교사로서의 자기 성장 과정을 의미했으며, 유아들과 교육적 관계 맺기, 동료

교사, 부모, 원장과 협력적 관계 맺기를 의미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돌봄이 더 잘 이루어지기위해서 구성원들과의 협력과 조화가 필요하다.

“돌봄의 교육 공동체” 형성이 절실히 필요하며, 교사, 유아, 부모 모두가 돌봄의 중심이 되는 삶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Martin(1994)은 3Cs- 돌봄(care), 관심(concern), 관계(connection) (1990,24) 라는 글귀를 만들어 냈다. 관계는 당연한 것이고, 돌봄은 괜찮으며, 애정과 귀여워하는 것은 수용할 만하지만, 사랑은 선을 넘는 일이다. 돌봄, 관심, 그리고 관계와 열정의 결합을 ‘사랑’으로 정의 한다(Goldstein, 2001). 영유아와의 관계에서 영유아교사는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봄을 실천할 때 사랑으로 돌보고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존재할 것이다.

다음으로 영유아교사가 행하는 두 번째의 역할은 ‘가르침’이다.

가르침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위키 백과.2017.5.12. 인출). 소학(小學)에서 자사자(子思子)가 말하기를 하늘이 사람에게 명령한 것을 성(性)이라 이르고 성에 따르는 것을 도(道)라 이르며 도를 닦는 것을 가르침(敎)이라 이른다고 이야기 한다. 교육이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갖추게 되는 도덕적인 능력과 지혜, 사물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행할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감수성이 예민하여 무엇이든 보고 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다시 말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백지상태의 어린이에게는 맨 처음 듣고 받아들여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말이 가장 중요함을 드러내는 것이다(조형남, 2004).

가르치는 입장은 배우는 측의 합의를 필요로 하며 배우는 측이 무슨 생각을 하든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약한 입장이라고 봐야 한다. 가르친다는 면에서 보면, 내가 말로 무언가를 ‘의미를 부여 한다’고 해도 타자

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의미는 성립하지 않는다(김종구, 2001).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가르침은 기본생활습관을 비롯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것부터 고차원적인 것까지 포함한다. 유아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유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돌봐주는 일과 더불어 교육도 담당하기 때문에 유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교육자의 역할도 하여 유아교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다분히 가르침을 통해 교사도 의도하지 않은 배움을 얻는, 유아교사가 교육과정의 절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았지만, 가르침이 발생하는 순간 ‘가르침의 순간’의 의미를 가진다(이경화, 손유진, 2014).

돌봄과 가르침은 함께 일어나기도 하며 더불어 행해지는 영유아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가르침과 배움은 동시에 일어나며 가르침이 배움의 순간이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교사교육기관에서 가르쳐진, 그리고 제공된 ‘가르침’에 대한 자료들은 모두 추상적인 이론적 자료들이거나 현장의 경험과 거리가 있는 자료들이었다(Goldstein, 2001). 이에 현장성 있는 경험으로서의 가르침의 의미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2. 영유아교사의 삶

최근 유치원 교사의 퇴직 수치는 2013년 한 해 동안 퇴직한 교원 15,324명중 유치원 교사가 4,981명으로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전체 교원 수 대비 유치원 교사의 비율이 약 10%인 점을 감안하면 유치원 교사들의 퇴직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더불어 전체 교원들의 퇴직 사유는 질병이나 정년, 명예퇴직이 대부분인

반면 유치원 교사들의 퇴직 사유의 대대수가 ‘기타’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유치원 교사들의 직업적 불안정성을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퇴직한 교사 중 대부분이 사립유치원 교사가 4,923명(98.8%)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유아교사 중 5년 미만의 경력이 대부분이다. 유아교육기관 중에서도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결혼 및 출산 때문에 교사가 해임되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데 비해 사립유치원에서는 결혼 및 출산이 교사의 퇴직 및 해임의 가장 큰 사유로 꼽히고 있다(고미경, 류숙희, 나정, 2006).

한국교육개발원(KEDI) 주요 교육 통계 서비스 내용 중, 교육 통계 분석 자료집-유초중등 교육 통계편(2016)에서 유치원의 경우 2005년 30.6세에서 2016년 33.0세로 2.4세 증가하였으며 유치원 교원의 경우 연령 구성의 51.9%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주체별로 교원연령 구성을 살펴보면, 국·공립 교원은 30대(33.6%), 40대(29.0%) 교원의 비율이 높았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20대(63.9%), 30대(18.1%) 교원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원 중 여교원 비율은 1980년에 이미 85%를 넘었으며, 2005년 이후 98%를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여 2016년 현재는 전체의 9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 통계 분석 자료집-유초중등 교육 통계편, 2016.)

2017년 2월에 발표된 교육 통계에 따르면(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 최근 3년간 유치원 교원의 퇴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통계 자료(2015.04.02 - 2016.04.01)에 의하면, 퇴직한 교사 중 유치원 여교원은 7,948명이며 그 중, 공립 유치원 교사는 139명, 사립유치원 교사는 7,809명으로 사립유치원 교사의 퇴직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퇴직의 사유 중, 결혼이 221명이며 사립유치원 교사가 전체 221명으로 100%를 차지하고 있다. 이직으로 인한 퇴직은 전체 2213명 중, 공립유치원은 1명이며 사립유치원은 2212명으로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휴직 후 복직을 하는 사람은 전체 295명 중 공립유치원은 260명이며 사립유치원은 35명으로, 사립유치원의 경우 휴직의 개념보다는 퇴직인 경우가 대다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휴직을 하는 전체 여교사는 703명이며 그중 국립유치원 2명, 공립유치원 680명, 사립유치원 21명이며, 그중 육아로 인한 휴직은 전체 여교사 575명중, 국립유치원 1명, 공립유치원 562명, 사립유치원 12명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의 경우, 휴직 후 복직하는 개념보다는 현장을 완전히 떠나 퇴직하거나 이직하는 것이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출산 휴가의 경우, 공립유치원 76명, 사립유치원 20명으로 출산 휴가에 대한 물리적 심적 부담 또한 있어서 처우와 복지가 보장 되어 있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출산 휴가 보다는 결혼 후 이직이나 퇴직을 선택하는 비율이 훨씬 높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일 많고 월급 적은 영유아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의 눈 영유아 교사들의 일일 근무시간은 대체로 길고, 행사를 비롯한 행정 업무 등으로 수행함으로써 야기되는 초과 근무 및 불규칙한 근무시간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으며, 이로 인한 자기 개발 및 여가 시간이 부족하다(임양미, 이명신, 2008). 이러한 열악한 근무 여건에 더하여 영유아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으로 인해 교사들은 상처를 받는다. 돌봄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면서 비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거기에 보태어 학대하는 사람으로까지 인식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무서운 부모, 흔들리는 교권이 현실의 영유아교사의 모습이다(심은주, 이경화, 2015).

교직은 자격을 취득해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이다. 유치원은 법이 정한 학교이고(교육 기본법, 제4조) 유치원교사는 전문성을 존중받아야 할 교

원이다(교육기본법, 제9조).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법적 지위와는 달리 여전히 유치원 교사직을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크게 필요치 않은 비전문적인 이미지와 함께 최근에는 일련의 아동 학대 사건들이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유치원교사를 불신하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교육기관이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대별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어린이집은 육아에 대한 지원이라는 역할 비중이 크고 이용 대상이 맞벌이 자녀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교사는 늦게까지 유아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어린이집 조직 특성이 있다(박은미, 2012).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특히 영유아교사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있다. 유아교사는 직업생애 주기의 조로 구조-유아교사는 취업 직후 보육 업무 및 환경에 대한 '현실 충격(이명순, 2000)'으로 시작해서 경력이 쌓일수록 유아교사는 쓸모 있게 되면 쓸 데가 없어지는 자기 파괴적 직업이다. 영유아교사의 직업적 취약성이 있다.

결국 영유아교사들은 여전히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한 채 휴직과 이직과 엄마로서와 교사로서의 갈림길에 불안하게 서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과 휴직 후 재진입에 대한 불안함과 육아 후 엄마교사로 돌아왔을 때의 호봉과 근무 여건 등에 갈등하며 고민하게 되어진다. 유치원에 근무하던 교사가 엄마교사가 된 후 어린이집으로의 이직을 생각하는 것과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도 느끼는 갈등과 어려움이 존재한다(김혜정, 2011). 엄마는 왜 꿈이 두 개면 안 되는지, 왜 가족 이외의 꿈을 꾸면 안 되는지(김민정, 2015) 엄마교사들은 꿈꾸면 꿈꿀수록 더해지는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엄마교사들의 어려움의 이야기를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의 풍토와 조직 문화 안에서 교사의 자기개발 욕구와 행복감에 대해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 영유아교사들의 생애와 기혼 영유아교사들의 생애에 대한 연구가 절실

히 필요하겠다(이경화, 심은주, 2013).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과 더불어 영유아교사들의 복지와 영유아교사들에 관한 관심 연구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 정혜영, 손유진(2015)이 분석한 영유아교사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추출된 418개의 키워드 중 가장 많이 출현한 키워드는 직무 만족이었다. 그 다음으로 직무 스트레스, 누리과정, 교사 효능감 순서로 나타났다. 키워드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키워드 중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직무 만족이었다. 그리고 유아교사 관련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키워드들의 흐름을 살펴본 결과,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누리과정 키워드 등 연결된 노드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직무만족이었다. 최근 가장 높은 키워드는 ‘직무만족’ 과 ‘직무스트레스’ 였다(정혜영, 손유진, 2015).

한편, 지금까지 기혼 유자녀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문 현실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직장인의 역할과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라는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혼 유자녀 유아교사에 관한 연구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기여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임정희 외, 2016).

3. 생애사 연구

생애사 연구는 연구자와 참여자와의 협동적 글쓰기로서 참여자의 목소리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Brine, 2010). 질적 연구가 확산되고, 양적 수치보다 한 사람의 생애를 따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생애사 연구는 참여자의 목소리를 통해 교육현상을 탐구한다(Goodson, 1992). 기본적으로 개인적

인 창문을 통해 공적인 맥락을 발견하여 이야기로 기술하는 연구방법인 것이다(김영천, 한광웅, 2012).

생애사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사 연구는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단순히 기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학적 안목으로 해석한다. 둘째, 생애사 연구는 시간, 공간, 사회 중에서 시간의 축을 중심으로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살펴본다. 왜냐하면, 시간성은 삶의 이야기가 형성되어 현재에 이른 과정을 드러내는 매개이기 때문이다. 셋째, 생애사 연구는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자연스런 상황에서 구술 면담하는 연구방법이다. 그러므로 생애사 연구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유기적 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김영천, 한광웅, 2012).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영유아 엄마교사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 의미를 시간의 축에 따라 살펴면서 사회적으로 해석하는데 있어 생애사 연구가 효과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생애사 연구는 여성학(Becker-Schmidt, Dausien, Diezinger, Krueger, 박성희) 그리고 교육학(Cole & Knowles, Freeman, Goodson & Sikes, Harnett, Samuel, Vithal, Sikes)등의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학문 분야에서 또한 높은 활용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교육 현상연구(김경식, 1998; 김연천 외, 2006; 김재룡, 2010; 우지만, 2013; 이동성, 2014; 이점우, 2007) 사회적 소수자 연구(성정숙, 2010; 조주희, 2013)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치를 가지고 있다(민성은, 김영천, 정정훈, 2015).

『빨래하는 페미니즘: 여자의 삶 속에서 다시 만난 페미니즘 고전』(고빛샘 역, 서울 민음사, 2014)의 서두 부분에 나오는 ‘나의 꿈을 지지해주는 진보 성향의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 어느 날 닥친 임신과 출산, 그 후 인생 향로가 송두리째 바뀌었다. 삼십대의 아줌마는 직업인의 같은

접어두고 아내와 어머니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타협해야했다. 일과 양육 사이에서 지원군도 성과도 없이 동동거렸고, 남편과의 다툼에서 우울해졌다.’고 시작을 한다(이남희, 2015). 이렇게 젊은 여성들이 가지는 우울감과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의 하락 뿐 아니라, 아직 많은 여성노인들이 가족 돌봄 일에 상당 수준의 부담을 갖고 있고,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여성들이 생애사 전반에 걸쳐 ‘양육자, 돌봄자’로 사회화되어 온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 둘 수 있다면 그만두고 싶다’라는 응답이 거의 절반을 넘어(최인희 외, 2012) 노년기 가족 돌봄이 여성 노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현주, 2015).

엄마교사는 여성이라는 의미에서, 여성 연구는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여성의 현황과 정책 대안 제시라는 현상 분석적 연구에 치중해 있었고, 페미니즘의 위기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논쟁적인 비판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 2000년대 이후 찾아들고 있는 페미니즘의 재활성화를 위해서 여성 현시대에 대한 보다 비판적이고 실천적인 문제 인식을 담은 여성 연구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강이수, 2013). 영유아교육기관의 엄마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머니인 동시에 교사가 되는 것에 내재해 있는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사랑과 교사로서의 사랑을 포함한다(Goldstein, 2001).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억압적 요소와 성취적인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이미지화 되는 모습도 변형 되어야 한다(김현정, 오정아, 2014). 여성들의 경험에 주목함으로써, 페미니스트들은 남성과 여성 둘다의 경험이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따라서 보편성의 개념에 도전하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모든 학자들을 고무시켰다(Maher, 1985). 이처럼 여성은 양육과 가정의 돌봄 역할을 나이가 들

어서까지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엄마가 됨으로 가지는 자녀에 대한 감정과 더불어 엄마교사로 자신의 반 아이들에게 가지는 감정을 ‘사랑’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며 돌봄, 관심, 그리고 관계와 열정의 결합을 ‘사랑’으로 정의 한다(Goldstein, 2001). 부모-자녀간의 사랑에 관한 연구가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와 영유아들간의 관계를 가장 근접하게 닮은 사랑의 형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Sternberg는 그의 모델을 “사랑의 삼각 이론” (1988a)이라 부르며, 사랑은 삼각형의 세면을 이루는 -친밀, 헌신, 열정-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Sternberg의 말로 친밀은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가까운, 연결된, 그리고 유대 된 감정” (1988a,120)을 묘사한다. 헌신은 누군가를 사랑하려는 결정과 그 사랑을 유지하려는 헌신 둘다를 수반한다. 헌신은 교사의 전문적인 삶에 중요한 부분이다.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과 그에 대한 준비에 시간, 노력, 자원을 헌신한다(Hargreaves, 1994; Lortie, 1975).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두 엄마 교사의 교직생애를 통하여 어려움을 살펴보고 현실의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며, 엄마교사로 살아가는 삶에 관심을 가지고 두 엄마교사가 살아온 삶과 어려움들에 귀 기울여 더욱 적극적인 실천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동기

나는 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가?

연구자는 부산에서 사립유치원 교사로 5년, 법인어린이집 교사로 3년을 근무하였다. 김해로 이사하여 사립유치원교사로 1년,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있는 곳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1년, 현재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교사로 4년째 근무를 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을 지지하고, 유치원에서의 근무를 원하지만, 시간과 환경과 가정생활에 소홀함을 인하여 어린이집으로 이직하게 되었다. 어린이집 역시 기관에 따라 업무환경과 업무형태와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르긴 하다. 현재 절반의 호봉을 적용하여 받긴 하지만, 정시 퇴근, 적당한 대우와 급여, 시간적 여유와 개인적 생활이 가능함에 만족하며 지내는 나는 엄마교사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필요로 할 때 수당도 받지 못하는 야간 근무를 거의 매일 해야 했고, 평가인증을 준비할 때는 밤 12시를 넘겨 퇴근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12시간 이상 근무는 기본이었다. 토요일 유치원 행사로, 심지어는 일요일에 행사를 강행하는 유치원도 있었고, 지인의 대소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사생활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경험으로 인하여 유치원교사의 직무만족이나, 유치원교사의 사회적 지지도, 엄마로서의 역할 수행의 어려움 등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싶고, “교사”로서 다른 기혼 여성 교사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표현하고 해소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나는 엄마교사로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유치원 교사임을 포기했다. 왜냐

하면, 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시간을 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유치원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보육적인 요소보다 교육적인 것을 아이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과 호봉을 모두 인정받는 대우와 ‘돌봄’에 치우친 보육이 아니라 ‘가르침’을 더한 교육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그리고 실습생이나 후원 양성에 대한 열망이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실습생은 어린이집 전체 일에서 필요한 청소나 잡다한 업무들을 곁 들여서 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가르침을 통한 배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는, 근무의 연장으로 인한 시간적인 문제와 여러 행사들의 진행으로 연간이 진행되는 유치원 습생에 대한 부담과 개인의 시간과 여유가 없는 것 때문이다.

내 아이는 아침 일찍부터 밥을 챙겨주고 나와 밤늦은 시간까지 방치되다시피 하는데, 남의 아이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에게는 내 아이보다 더 집중하고 돌보게 된다. 이렇게 기관의 아이들에게 내 아이보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고, 부모와 상담하고 교육하고 애쓰는 내 모습에 대한 회의가 생겼다.

이러한 나의 삶의 경험들에 비추어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만족이 이직에 미치는 영향들과 여성인 엄마로서 유치원에 근무하기 힘든 환경과 여건들과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혼교사로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살아남기에 관한 동료 교사들의 이야기를 연구로서 담아보고 싶었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홍교사와 이교사, 두 명의 엄마교사이다(<표 1>참조).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이름	나이	경력	학력	소속 기관	담당 학급	자녀	결혼 기간
홍교사	만40세	16년	대졸	사립 유치원	만5세	1녀 (7세) 1녀 (6세)	11년
이교사	만38세	14년	대졸	가정 어린이집	만2세	1남 (8세) 1녀 (5세)	10년

가. 홍교사²⁾

홍교사는 만 40세로 대학 졸업 후 실습을 했던 S유치원에 채용되어 부담임을 시작으로 하여 사립유치원(S유치원)11년 근무하였다. 그러나 몸과 마음을 다해 열정, 헌신, 투자 하였던 유치원에서 근무환경의 고달픔과 사립유치원의 공공연한 현실인, ‘결혼을 하면 유치원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듯 결혼을 하고 휴직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힘든 일과와 원장선생님의 고된 업무 부과로 인해 유산을 경험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학기는 마무리 하는 것이 예의’ 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유치원 교사들의 법 아닌 법 같은 스스로의 약속을 마무리 하고

2)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신상 보호를 위하여 가명으로 지칭함을 밝혀둔다.

휴직을 하였다. 휴직 후 다시 아기를 가지기 위한 건강관리와 몸 돌보기를 하며 남편 태권도 학원을 2년 동안 도우며 지냈다. 홍교사의 면담 중 휴식 하며 남편의 일을 돕고 두 자녀를 낳고 키우던 이 짧은 2년의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았던 시간이라고 회고한다.

유산 후, 일 년 반 만에 귀하고 소중한 딸을 얻고 또 연년생으로 두 자녀를 낳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것도 잠시, ‘경제적인 사정과 가정의 일’로 인해 홍교사는 재취업을 모색하고, 재진입을 위해 여러 기관을 알아보고 두 자녀를 돌보며 함께 다닐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는 곳의 어린이집으로 아르바이트 하듯 도와주는 의미로 취업을 하였다. 그리고 아직 젖을 떼지도 않은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다니며 일하기에 적절한 그 곳에서의 정식근무를 원하였지만,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그곳 어린이집에서는 홍교사의 재진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홍교사는 일을 시작하였으니 11년 동안 근무하였던 유치원 경력을 따라 유치원에서의 근무를 결심하고, 어린자녀들을 고려하여 관리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유치원을 찾게 되었고, 원하는 대로 원감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었다. 사립유치원인 B유치원에서 근무하며 자녀들은 어린이집에 내어 던져지다시피, 아침과 저녁을 맞이해야했고, 여러 가지 황당하고 이해 할 수 없는 유치원의 방침과 교육관에도 자신의 발전과 자녀와 경제적 사정을 위해 견뎌보려고 했으나 홍교사와 맞지 않는 교육관을 가진 관리자들과 이해 할 수 없는 행동과 사고를 가진 기관의 태도에 1년만 마무리 하고 또 이직을 결심하게 된다. 다른 유치원을 찾던 중, 처음 11년 동안 근무하였던 S유치원의 원감 선생님께서 계시던 분께서 유치원을 인수하여 시작하시며 홍교사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홍교사는 두 자녀가 함께 다닐 수 있다는 안도감과 기대에 감사하는 마음까지 가지며 흔쾌히 수락하고, W사립유치원에서의 근무를 두 자녀와 함께

시작하였다.

엄마의 재진입과 더불어 어느 기관으로 보내야 할지 고민하고 늦은 일과에 발을 동동 구르던 두 자녀가 이제 일곱 살, 초등학생이 될 만큼 자랐고, W유치원에서 4년 동안 자녀들과 함께 근무하고 졸업시키며 현재 엄마교사로 사랑과 열정으로 열심히 살아내고 있다.

나. 이교사

이교사는 만 38세로 대학 실습으로 왔던 S유치원에서 세 명의 실습생이 함께 실습을 하고, 홍교사와 연구자와 함께 S사립유치원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시작 하게 되었다. 연구자의 반 실습생으로 실습을 한 후 부담임으로 채용이 되어 일 년 동안 근무를 하고, 부담임 세 명 중 혼자 담임으로 선택되어 자율 장학과 수업 연구와 지구장학 등을 통해 능력 있고 본이 되는 선배로 성장하고, 9년간의 근무 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과 열심에 부흥하여 원감자격 연수를 신청 할 수 있게 되었고, 충분히 누적된 연수 점수와 경력으로 연수 대상 확정이 거의 확실시 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임신을 하게 되며 휴직을 고민하게 되고, 그래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보겠다는 마음으로 ‘사립유치원에서는 결혼을 하면 그만두어야 한다.’는 의례적인 전통 같은 것을 극복하고 깨뜨려 보려고 유치원측에 담임이 아닌 종일반 교사나 다른 방법으로의 근무 요건을 제안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오랫동안 근무한 이교사의 휴직고민을 알고는 붙잡는듯하다가 이교사가 원감자격 연수자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앞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좋은 선택인 것 같다며 휴직을 권하였다.

많은 고민과 걱정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여러 선배 교사들과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묻고 들으며 이교사는 육아를 위한 휴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잦은 해외 출장과 늦은 근무로 늘 바쁜 남편의 몫까지 함께하며 첫째를 낳고 키우던 중 집에만 있는 무기력함과 자녀를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후 취업하여 한 번도 일을 쉬지 않았던 터라 휴직하는 그 해부터 재진입을 고민하며 자녀를 데리고 일을 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면담을 통해 보았을 때 이 교사의 재진입의 마음은 유치원에서 원감자격 연수를 받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던 아쉬움이 가장 큰 역할을 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이교사는 유치원으로의 재진입을 원하였으나 사립유치원의 형태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고, 자녀를 데리고 출근할 수 있는 가까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재진입을 시도하고 재취업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시, 어린 자녀를 데리고 다니며 근무를 하는 것이 무리가 되었던지 둘째 자녀가 생겼으나 유산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집에서 몸조리를 하고 건강을 챙기며 휴직을 하게 되었고, 둘째 자녀를 다시 가지게 되고, 여전히 바쁘고 자주 집을 비우는 남편을 대신하여 두 자녀를 키우며 ‘엄마’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것도 잠시, 이교사는 조금 더 아이들을 돌보며 시간과 공간과 일이 고되지 않는 일을 찾았고, 자녀들을 챙기고, 함께 할 수 있고, 근무시간도 짧은 집 근처 가정어린이집에서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한 유치원에서의 탄탄한 경력과 능숙한 일처리가 가정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께 감동을 주었고, 믿고 의지하는 교사로 발돋움하여 현재까지 4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가정어린이집의 처우와 근무 여건상, 임금과 호봉 인정은 제대로 되지 않지만, 원장님의 재량으로 인상해 주시는 급여와 시간적 배려를 만족하며 두 자녀를 키우고 돌보기엔 딱! 좋다며 여전히 두 자녀를 키우는 엄마의 자리가 더 중요함을 인식하며 자신이 원

하는 길을 포기하며 조금이라도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엄마교사다.

지금도 여전히 해마다 유치원으로의 재진입을 고민하고, 유치원 연합회와 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며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고, 한편 많은 경력과 높은 호봉으로 불가능을 예감하는 걱정 많은 엄마선생님이다.

3. 자료수집

홍교사와 이교사와의 만남은 2016년 10월에 시작되었고 2017년 1월까지 이어졌다. 엄마교사로서 바쁜 일정과 일상으로 인해 계획되었던 9번의 만남과 자서전적 글쓰기는 7번의 만남과 인터뷰 후 소감을 반성적 저널 형태로 기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두 엄마교사와의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 녹취하였다.

각 인터뷰 회기별 수집한 전사본을 종합해 보면, 전체 연구 참여자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자료의 전사본은 A4 용지 기준 약 85매이며(홍교사 약 40매, 이교사 약 45매), 인터뷰 후 소감문을 기록한 반성적 저널이 3매(홍교사 1매, 이교사 2매), 연구자가 각 인터뷰 후 7회 기록한 연구자 일지 20매이다.

두 엄마교사와의 인터뷰 과정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인터뷰 과정

차수	날짜/시간	장소	참석자	면담내용
1회	2016.10.1. (17:00 -19:00)	사상 A커피숍	홍교사 이교사	-연구주제 및 절차에 대한 설명 및 참여 의사확인. 동의 -연구에 참여하게 된 소감 및 연구 참여자의 자기소개 PART 1. 여성으로서의 교사 ① 유아교사로서의 삶의 역사 개관 ☞ 어떻게 교사가 되었습니까? ☞ 교사가 된 후부터 현재까지의 교사생활 이야기를 해주세요.
2회	2016.11.19. (10:00 -12:00)	홍교사 근무 유치원	홍교사 이교사	② 이직경험에 대한 이야기-이유, 과정(위기) ☞ 이직의 경험을 이직 이유와 이직의 과정을 자세히 이야기 해주세요. ③ 이직 후 재진입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이유, 어려움 ☞ 휴직 후 재취업의 과정을 이야기 해주세요. ☞ 이직의 이유와 이직 했을 때의 어려움을 이야기 해주세요.
3회	2016.11.26. (10:00 -13:00)	홍교사 근무 유치원	홍교사 이교사	PART 2. 모성으로서의 교사 ① 출산과 육아경험 역사 개관 ☞ 결혼과 출산 후의 육아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② 육아 전·후의 교사의 경험 -장. 단점, 갈등

				☞ 자녀가 영유아기 때 육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또는 했습니까)? ☞ 자녀가 있기 전과 자녀가 생긴 후 교사 생활에서 장점 또는 단점은 무엇이었나요? ☞ 육아전과 육아 후 경험의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교사로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었던 경험들을 이야기 해 주세요.
4회	2016.12.3. (15:00 -18:00)	엄궁 A커피숍	홍교사 이교사	PART 3. 여성이자 모성으로서의 직업인 ① 경제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 -노동의 강도와 경제적 보상 ☞ 선생님의 하루일과와 생활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 선생님의 개인시간은 있습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이야기 해주세요. 개인시간이 없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선생님의 보수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 선생님의 경제적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 해주세요.(월급의 사용)
5회	2016.12.17. (16:00 -20:00)	엄궁 A커피숍	이교사 홍교사	② 사회지위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 ☞ 사회인식적인 면에서 선생님의 지금 교사생활을 이전 교사생활과 비교하여 이야기 해주세요.

				☞ 자녀를 키우는 유치원교사(어린이집 교사)는 사회적으로는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6회	2017.1.7 (20:00 -21:00)	엄궁 A커피숲	홍교사 이교사	③ 직장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삶 ☞ 여자로서 결혼하여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 우리 사회에서 엄마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 자녀가 있는 엄마선생님으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7회	2017.1.14. (16:30 -20:00)	엄궁 A커피숲	홍교사 이교사	④ 정책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 ☞ 엄마교사로서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정책이나 교사에 대한 처우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소감

4. 자료분석

생애사는 개인의 경험에 관한 역사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시간’은 생애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이런 생애사는 단순히 과거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삶 자체는 항상 현재에 이루어지지만, 지나온 삶을 이야기 하면 과거, 현재와 미래가 서로 영향을 준다. 과거에 대한 해석은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하기도 하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전망하기도 한다. 이러한 홍교사의 이야기와 이교사의 교직 생애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Giorgi(2004)의 기술적 현상학적 방법의 4단계를 적용하였다.

1단계로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 연구 참여자의 진술내용을 전체적으로 직관적으로 파악하였다. 2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영유아교사로서의 엄마교사경험 자체에 의미가 있으며 명백하게 차별적으로 기술된 내용이 있는 부분을 의미단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 기록하였다. 세 번째 단계 의미단위를 학문적인 용어로 전환하는 단계 즉,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이 학문적 용어로 전환될 때 논리적 비약이나 현상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 홍교사와 이교사의 인터뷰 내용을 텍스트 별로 분류하여 그 중에서 주제어를 찾아 간주관성을 가지고 진술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거쳐 두 엄마 영유아교사의 생애와 두 엄마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주제를 나누고, ‘두 엄마 영유아교사의 교직생애사’에서 홍교사의 텍스트에서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부끄러운 영유아교사가 되다.’, ‘행복한 추억의 10년 미혼교사 생활’, ‘결혼이 시련으로, 시련이 휴직과 이직으로’, ‘엄마교사로 발돋움하다.’, ‘슈퍼우먼 엄마 선생님’, ‘감사하며 소망하다’ 같은 주제를, 이교사의 텍스트에서는 ‘첫 직장에서 버텨야한다는 3년이 10년이 되다.’, ‘엄마라서 거절당한 10년의 시간’, ‘갈망하는 유치원을 접고 가정어린이집 파트타임교사로’, ‘엄마 아직도 유치원은 안 돼!’, ‘힘든 것은 내 마음뿐’, ‘포기하고 선택한 나를 칭찬합니다.’와 같은 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두 엄마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의미’에서 ‘나는 3D직업, 영유아교사다’, ‘임신과 출산의 강요된 침묵’, ‘엄마와 교사의 경계’, ‘정책담

론에서의 소외'와 같은 주제어를 도출하여 홍교사와 이교사 두 엄마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연구자는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가 엄마교사로서 체험하고 경험한 것과 더불어 연구자 일지를 통해 연구자 자신의 경험을 더하여 반성하고, 자료 수집, 자료 해석 등에 균형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의 단계에서 지도교수와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분석과정의 연구의 신뢰도와 분석 과정의 타당성과 충실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편,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 시작 전에 두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의 과정과 중도 참여 중단에 대해 안내하고 작성한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부록 참조). 그리고 연구결과를 보고 하는 과정에서 기관명과 교사 이름, 자녀이름 등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으며, 참여자가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부분은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IV. 두 엄마교사의 교직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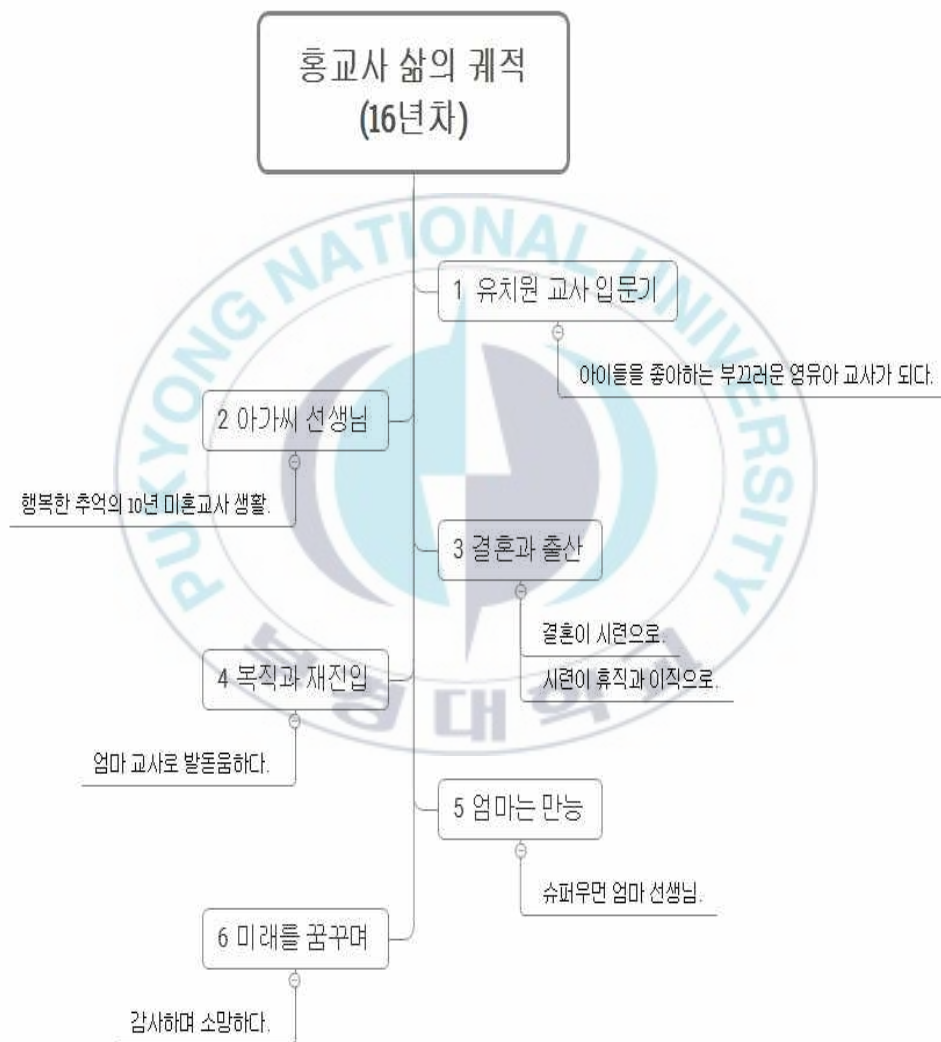
Armitage와 Gluck(1998)은 여성 구술사 연구에서 보다 더 연구자가 민감해야 하고 자기 인식적이어야 한다는 점, 인터뷰 과정의 상황성과 연구자와 구술자 여성의 위치성(positionality)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개인 여성 구술자의 해석과 경험을 넘어선 여성의 집합적인 경험(kollective experience)의 역사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장에서는 두 엄마교사의 교사생활 시작부터 현재와 미래를 바라는 기대감까지 시간 축을 따라 그들의 교직생애를 기술하고자 한다.

1. 홍교사 이야기

홍교사는 16년의 교직 생애를 가지고 있다. 유아교육과를 선택하고 유치원교사가 되기까지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보모’의 이미지를 가진 유치원교사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가졌다. 그러나 교사생활을 통해 자존감의 회복과 자신감을 가지고 배움의 즐거움과 선후배, 동료 교사들과의 원만한 생활 속에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할 S유치원에서 10년의 교사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유산과 더불어 어려움을 겪으며 휴직을 하게 되었다. 남편을 도우며 다시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었고, 자녀가 아직 어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재진입을 시도하였다. 자녀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시간제 교사로 출근하며 계속 근무를 원하였으나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에 거절당하고, 관리직으로 유치원으로 재진입하였다. 그러나 자신과 맞지 않는 교육관으로 세 번째 이직을 결심하였다. 그 후, 다행히 교육관도 맞고 신뢰할 수 있는 이전의

첫 근무지였던 S유치원 원감선생님이 W유치원 교사로 와 줄 것을 요청하였다. W유치원으로 이직하고 두 딸을 데리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엄마교사로 바쁜 일상과 많은 업무와 일들을 소화해내며 슈퍼우먼 엄마로 현실에 감사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소망한다.



[그림 1] 홍교사의 삶의 궤적

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부끄러운 영유아교사가 되다

홍교사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하여 유치원 교사를 할까 생각을 하던 차에 진로를 선택해야할 고등학교 때 유아교육과를 선택하고 유치원 교사가 되었다. 오빠 둘을 둔 막내딸로서 현모양처 형으로 자랐고,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 부담임으로 생활하는 동안도 힘듦과 어려움과 고달픔이 오히려 배울 수 있는 감사한 기회였다고 이야기 한다.

그냥 아이들을 좋아해서 어릴 때는 유아교사를 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를 가고 이제 대학을 갈 시점에 어느 과를 선택을 할까 하다가 거기가(유아교육과) 가장 나을 것 같아서 그 직업이 나에게 맞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교사 생활을 시작 했지. ... (중략) ... 실습을 S유치원에서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 바로 부담임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 부담임 생활을 하면서 그 부담임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밑의 뒷치닥거리 이런 걸 다 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나는 그게 뒷치닥거리고 담임선생님들 뒤를 봐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나는 빨리가서 최대한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돕고 그렇게 해서 담임선생님들이 왔을 때는 조금더 편하면은 나는 더 좋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지 하는 생각으로 부담임 생활을 해서 그런지 그 부담임 때의 생활이 지금 내 기억 속에는 참 기분 좋게 남아있는 것 같아

(2016.10.1. 인터뷰)

그러나 홍교사의 처음 교사 생활을 시작 할 때의 사회의 인식은 유치원 교사의 이미지에 대한 편견과 ‘보모’ 같은 이미지로 그리 떼떽하고 뿌듯하지 않은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다고 이야기 한다. 주변의 이야기들과 사

람들의 인식의 의식한 아이돌보는 사람으로만 보는 시선에 부끄러워했었다고 이야기 한다.

홍교사: 나는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 옛날에는. 직업이 뭐예요, 물어보면 밝히기가 싫었어. 그냥.

연구자: 유치원 교사라는 게?

홍교사: 어. 그냥 조금 밝히기에는 조금 싫은, 내 스스로도 좀 부끄러워했던 것 같애. 그런데 연차가 가면 갈수록 유치원 교사입니다, 하는 게 자부심은 있으면서 자신감은 있는데, 그래도 좀 부끄러운 거 있잖아. 그냥, 약간. 밝히기가 싫었던 것도 약간, 어 예전에는, 좀 자신감 없는, 좀 낮게 취급이 되었거나, 그런 것 때문이었는데, 소위말해서 예전에는 보모인 개념으로 그랬는데 그게 참 부끄러웠던 것 같아 지금은 그렇지 않는잖아.

(2016.12.17. 인터뷰)

홍교사는 자신이 유치원 교사라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을 만큼 유치원 교사의 위치를 낮게 보았고, 자신감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음을 이야기 한다.

돌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Goldstein, 2001). 사립유치원교사들이 이직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유치원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관여 되어 있다. 이러한 유치원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차주경, 이경화, 2011). 홍교사처럼 아이들을 좋아해서 교사가 되었지만, 사회 인식적 이미지로 인해 나의 직업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이 그러하다.

나. 행복한 추억의 10년 미혼교사 생활

유치원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자신감이 생기고, 홍교사는 참 행복하고 기분 좋았던 지난 추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과거로 기억하며 회상한다.

그 부담임때의 생활이 지금 내 기억 속에는 참 기분 좋게 남아있는 것 같아 그때 당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차를 두 시간 세 시간을 타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등. 하원차량을 우리 때에는 혼자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탔는데 큰 버스에 애들 60명씩 이렇게 태웠는데 그게 힘들지 않았고 지금기억에, 물론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겠지. 안 힘든 사람을 없었을거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참 재미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도 나는 부담임이다 하면서 하대하지 않고 대접을 해 주었고, 그 유치원에 있는 원장선생님이든 이사장님이든 모든 분들이 다 교사로서의 대접을 해주었기 때문에 아마 그 생활이 더 재미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그리하면서 담임으로 갈 때 사실은 너무 엄한 교사여서 원장님이 우려하는 점이 있었는데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원장님한테 다짐을 하고 담임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그래도 다행인게 담임을 하면서 원장님께 또 인정을 받으니까 그것도 참 기뻐고, 오히려 나는 학교생활보다 S유치원에서의 그 11년의 생활이 내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담임을 하고 1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내 몸이 힘들지만 그래도 그 힘든 만큼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일등하지 못해보고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는데 그래도 유치원에서는 인정받고 한 7년차쯤 되니까는 거기에서 주변에 있던 어머님들이 와가지고 입학상담을 오면은 우리아이를 여기 만3세반에 꼭 보내고 싶었다. 왜냐하면 여기 만3세반에 선생님이 참 잘한다 하더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것만큼 뿌듯한 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의 생활이 가장 행복했었고,

(2016.10.1. 인터뷰)

Fried(1995)는 열정적인 교사들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교사들을 구별짓는 것은 “아이디어와 가치에 관심을 갖는 품성, 사람들 안에 있는 성장을 위한 잠재력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것, 어떤 것을 잘하고 최선을 위해 노력하는 깊이와 열정” (p.17)이라고 주장한다. 열정적인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하는 자신의 삶으로 인해 의욕이 넘치며, 그들과의 일로 성취감을 느낀다고 덧붙인다. 열정적인 교사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가르친다.

홍교사도 그만큼의 열정과 열심과 진심으로 기뻐하는 에너지를 가졌던 시절이었다.

다. 결혼이 시련으로, 시련이 휴직과 이직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결혼하고 한 가정을 꾸리며 꿈같은 신혼을 즐길 시기에 홍교사는 유치원 교사로 무리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평범한 교사로서의 생활에 ‘교사’라는 이름과 더불어 아내, 며느리 등의 이름이 생기며 결혼하여 ‘임신한 유치원교사’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자신이 열심히 더 노력하고 애쓰고 원에 피해를 주지 않고 더 열심히 미혼교사와 똑같이, 어쩌면 더 애쓴다는 것이 무리가 온 것이다.

젤 처음에 시작한 유치원은 S유치원에서 11년을 있었고, 아이를 가지면서 이제. 힘도 들고 해서 잠시 쉬는 틈을 타서 신라의 태권도 도장을 잠시 도우면서 휴직 기간을 가지다가 가정 살림에도 보탬이 되고 자 다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2016.10.1. 인터뷰)

그때에 사실은 있던 데니까 원장선생님이랑 기존의 선생님들은 너무 좋았는데 원장선생님과 마음의 조금 원장선생님이 너무 섬세한 점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 섬세한 점은 지금은 사실기억이 잘 나지 않아 그게 이제 아마 그때 당시의 내 마음의 상태가 그만큼 힘들어서 그랬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때 당시에는 힘들긴 힘들었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 해 지나고 그 다음해 까지는 꼭 있다가 나갈거다-라고 원장선생님께 내가 이야기를 하고 끝마무리는 해줘야 되겠다 하고 결혼하고 일 년 반을 더 있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쯤 마지막에 쯤 힘들었던게 임신하고, 임신하면서 입덧을 많이 심하게 했는데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옆에 선생님들은 오히려 처녀인 선생님들은 이해를 해 줬는데 원장선생님이 그거를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는지 부담하다는 생각을... 내가 원장선생님이 부담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점이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임신하고 입덧하면은 사실 너무 힘들어서 힘도 없고 자꾸만 눕고 싶었는데 일이 끝나고 잠시 청소할 때에 잠깐만이라도 누워있고 싶었는데 그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으니깐 내가 더 힘들지 않았나 그리고 차를 타고 연수를 받으러 가기도 좀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그거를 갔으면 하는 원장선생님의 생각이 나는 그게 왜 왜 좀 몰라주지 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옆에 주변에 선생님들은 선생님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선생님 우리가 할게요 하고 도와주는 건 참 많아서 그거는 그래도 참 좋았어요.

(2016.10.1. 인터뷰)

영유아교사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교사생활을 유지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맡은바 책임과 담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더 무리한 일상을 소화해 내야하는 '현실' 과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많

은 영유아교사는 결혼과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휴직하거나 퇴직을 선택하게 된다. 현재에도 퇴직의 사유 중, 결혼이 221명이며 사립유치원 교사가 전체 221명으로 100%를 차지하고 있다는 한국 교육 개발원(KEDI)의 통계 자료를 보아도 그러하다.

S유치원에서 결혼을 하면서 결혼하는 그 해에 나는 그만둘 것이다 하고 그해 10월에 그만둘까-하는 마음을 먹고는 있었는데 원감자격 연수를 받아야 되고 자격 연수를 집어넣으면서(신청) 원장님이 혹시라도 그만두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조금씩은 하셔서 그냥 한 해는 더 해야 되겠다. 대신에 아이는 절대 가지면 안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원장님한테 안심을 시켰지 “원장님- 한해 꼭 제가요 내년까지는 꼭 있을 겁니다.” 아이는 가지지 않고 내년까지는 꼭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해 결혼하고 그 다음해 까지 한게 거기서 11년을 일을 했는데 그다음에도 아이를 가지면서도 일을 또 하면 좋은데 나도 이제 11년 동안 일을 해놓으니까 유치원에서는 사실 힘들기도 하고, 모든 유치원들이 다 힘 들것이고, 특히 그 당시에는 결혼한 교사가 없었잖아 당연히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유치원을 그만두는 것이 의례인 것처럼 했었잖아. 어떤 일 이든지 힘들 것이니까 11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한 거지, 그러니까 힘이 들고 그리고 또 결혼을 했으니까 잠시 쉬고도 싶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가지면서 그만 두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는 찰나에 원장선생님도 조금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해 그만둘까하고 마음을 먹고 있을 찰나에 아이도 들어서고 그런데 또 아이가 잘못되면서 아이가 유산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해에 까지 유치원을 마무리를 하고 나왔지

(2016.11.19. 인터뷰)

가장 힘든 것은 내 마음이었지. 힘들다는 마음? 지친 것 같다는 마음?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 사람이 유치원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지만, 특히 원장 선생님이 전혀 배려는커녕 아이를 가지는 것이 유치원에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내가 내 일을 제대로 못할 것처럼 이야기 하셨었지. 나는 내 나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과 똑 같이 하려고 하는데 원장님은 눈치 주듯이 계속 그러셨고, 지금은 정확하게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이가 유산 될 만큼 참 힘 들었었네... 몸도 마음도... 특히 마음이 지쳐서.

(2016.11.19. 인터뷰)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임신은 환영받지 못하고 ‘티내지 말아야 하는 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직무를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부담스럽고 곤란한 존재가 된다. 임신으로 인한 신체의 변화나 달라진 상황이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미리 누가 알려준 것처럼 경계하고 눈치를 주고 배려는커녕 더 혹독해 지는 현실이 몸과 마음의 소진을 만들어 내는 요인이 되어간다.

그렇게 유치원을 나와 가지고 이제 일단은 몸조리를 하고 아이를 다시 가져야 하니까 결혼한 지 일 년 반이 지났으니까 나이도 적은 편도 아니고 서른이 훨씬 넘어서 아이를 가져야 되니까 유치원 일을 그만두고 신랑 태권도장에 가서 같이 일을 해 주면서 통학도 돌아주고 밥도 좀 챙겨주고 하면서 좀 편안하게 생활을 했지. (웃으며) 그래하면서 애 가지고 큰애를 놓고, 큰애 놓고 나서 둘째가 바로 들어서면서 둘째를 그다음에 바로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랑의 일도 어려워지고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다시 취업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그 찰나에 아는 친구가 어린이집에 있는데

(2016.11.19. 인터뷰)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결혼과 임신, 출산으로 겪는 어려움(구자영 외, 2013)’의 연구에서 이야기 한 결혼을 하고 임신하여 교사생활을 하는 데에 갖는 부담 중 ‘유산의 경험’에 대한 두려움의 이야기가 영유아교사들에게는 현실이다. 그만큼 몸과 마음에 무리를 주는 현재 교사들의 자리는 내·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가 사립유치원을 떠나온 한 달쯤 되던 날 원장님께 전화가 와서 다시 돌아올 것을 권하던 내용도 ‘새로 채용한 교사가 임신한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아서 내보내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홍교사의 이직하기 전 힘든 시간들은 함께 이야기 나누며 위로했었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시간들이었다. 결혼하여서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애쓰며 유치원의 업무에 열심이었으나, 결혼하여서 유치원 일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 반 아이들을 신경쓰는 데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눈치 아닌 눈치를 받는 것이 아직도 기존 유치원의 분위기이다. 심지어는 내가 아는 지인 중에는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는 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임신한 거 티내지 말라고 하는 원장님도 계신다고 한다. 홍교사 역시 결혼 후 아이를 갖고 싶어 하던 때에 임신을 하였고, 유치원 생활 또한 이어갔었다. 옆에서 보아도 무리하는 직장생활이었고, 행사로 인한 늦은 퇴근, 토요일에도 진행하는 연구수업과 수업 장학, 여러 가지 서류나 공무처리 업무들을 비롯한 잡무들로 인해 홍교사는 유산을 하였고, 옆에서 함께 하던 교사들도 안타까워하며 같이 마음 아파했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유치원에서는 교사의 인권보다는 유치원운영과 학부모와 아이들만이 우선이었다. 지금 현재도 그런 분위기는 여전한 곳이 다수이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홍교사는 휴식

을 선택해야했고, 많이 분노했고, 많이 속상해 했었다. 하지만, 제도적인 변화나 유치원에서의 배려는 교사들 간의 배려뿐 전혀 없었다. 그때부터 먼저 결혼한 내게 조언을 구한다며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휴직을 고민했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휴직과 복직, 이직을 고민하며 늘 함께 이야기 하고 생각을 물어왔던 것 같다.

(2016.11.19. 연구자일지 2.)

홍교사는 고된 유치원 교사의 일반적인 양상으로, 결혼하면 당연히 기관을 떠나는 것을 몸소 느끼며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로 휴직을 선택했고, 휴직 후 자녀가 생기며 남편을 돕던 생활을 접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재진입을 선택했다고 이야기 한다.

사립유치원교사들이 이직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유치원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관여 되어 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이직에는 결혼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여성의 본질적인 한계가 내포되어있다. 재충전과 휴식, 결혼과 출산이 휴직이 아닌 이직 또는 퇴직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사립유치원이 놓여있는 현실과 결부되어있다(이경화, 차주경, 2011).

라. 엄마교사로 발돋움하다

홍교사는 유치원 근무 중 유산한 후, 일 년 반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다가 다시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 기쁨도 잠시, 휴식하며 남편을 돕던 일이 여의치 않아 재진입을 생각하고, 자녀를 연년생을 낳으며 자녀를 데리고 할 수 있는 교사직을 선택한다. 그리고 엄마 교사라서 부딪히게 되는 일들과 엄마 교사라서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해 두 번의 이직을 결정한다. 미혼교사였다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엄마’라는 이름으로 바라보지 않

고 존재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정들이 꼭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 어린이집에서 다만 몇 만원을 받더라도 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닌다면 이것도 가능 하겠다' 생각하고 그쪽에서 일을 할려고 딱! 마음을 먹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자녀를 데리고 출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고. 다른 엄마들 눈에도 신경 쓰이고 뭐... 그렇다고... 이럴 바에야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냥 바로 일을 하는게 안 낫겠나 해서 일을 할 마음을 먹고 그해 4월에 작은 애가 둘째가 한돌 딱 될 때 돌잔치 할 무렵에 쫓을 때고 바-로- 취업을 한데가 B유치원이었는데 거기 취업을 할 때에는 교사로 가면은 내가 또 일에 얽매어야 되니까 ... (중략)... B유치원이었고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는 마침 다행인게 6시면은 칼퇴근을 할 수 있고 아침에는 8시 반까지 출근을 하는데 ... (중략)... 그래서 그쪽에서 생활을 하면서 거기의 교육관과 나의 교육관이 맞지 않고 그 원장님의 교육관과 나의 교육관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두말 안하고 그해만 딱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지금 여기 W유치원이었는데 여기 올 때도 아무어려움 없이 왔던게 W유치원 원장님은 기존에 내가 다녔던 S유치원 또 다른 동래 S유치원, 같은 유치원이니까 이사장님이 같은 이사장님이고 설립자가 같으시니까 교육관이 똑 같으시고 그곳에 계시던 원감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아무 말 안하고 정말로 여기에 와서 늦게 마치더라도 그냥 그대로 직업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2016.11.19. 인터뷰)

엄마선생님으로 직장을 선택하고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더 이상 나의 교육관과 교육철학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려해야하는 일이 된다. 자녀를 보내는 시간과 직장에서 받을 것인지, 퇴근하여 데리러 갈 것인지, 같이 데리고 다닐 수 있는지 등등 자녀중심의 삶과 일하는 엄마로 바뀌게 된다. 그 외에도 엄마선생님은 특별한 일이 있거나 기관의 행사나 자녀가 아픈 일이 생겼을 때를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며 대처 할 수 있는 엄마선생님의 자리와 기관을 다니게 될 자녀의 자리를 동시에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

자기만족이고, 나는 사실, 결혼해서 직장 생활 하는 게, 여자로서 결혼해가지고, 잠시 쉬는 기간이 얼마 없었잖아?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좋고, 오히려 근데 이제 일적인 면에서 가정생활까지 병행을 해야 되니까 힘든 점은 있어. 근데 힘든 만큼 얻어지는 노력도 있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 얻어지는 그게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으니까, 참 그 때 당시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게 나를 일 할 수 있게 해 줬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참 잘했네, 그 생각이 드네. 그래도 힘든 거는 힘든 거지 여자로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한다는 것은.

(2017.1.7. 인터뷰)

모든 일들이 그러하겠지만, 그리고 사람들의 삶들이 ‘선택’이라는 길 위에 있겠지만, 특히 유치원이라는 곳에서 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그러했다. …(중략)… 그리고 나면 지칠대로 지친 몸과 마음은, 회복을 위해 쉼과 여유를 갈구하지만, 교사로, 엄마로, 아내로, 또 누군가의 며느리로 존재하는 ‘한 여자’는 유치원교사의 길을 원하지만, 내 아이들의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더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많은 호봉을 부담스러워하여 급여가 줄고, 사회적 인식도 높지 않은 어

린이집교사를 선택하여 근무를 한다. 결혼한 교사가 또, 자녀가 있는
엄마 교사가 특히,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그곳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원감이 되고, 원장이 되는 일은, 내 자녀와 내 가족을 포
기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가득하여 참 씹쓸하다.

(2016.11.19. 연구자 일지2.)

홍교사는 깊은 한 숨을 내 쉬며 지난날들을 돌아보고 이야기를 할 만큼
힘들었던 일들과 눈물지었던 일들을 떠올렸다.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일 하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 같고
결혼해서 자녀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지
금의 약간의 유명세를 가진 사립유치원교사로서 자리하며 서 있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고 긍정적 회고를 한다.

오래전 유치원교사로 근무하다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둘째아이
가 다섯 살이 되던 해 원래 근무하였던 유치원의 요청으로 다시 근무
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엄마 교사” 생활을 하며 유치원 신문에 “나
는 엄마 선생님입니다.” 라는 글을 게재한 적이 있었다.

‘나는 엄마 선생님입니다. 내 자녀를 키워 보았기에 아이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유치원의 아이들을 엄마의 눈으로 바라 볼 수 있고
이해 할 수 있는 나는 엄마 선생님입니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다.

(2016.12.17. 연구자 일지5.)

엄마가 된 유아교사들은 엄마와 교사라는 두 가지 역할의 갈등에서 오는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내 몸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자각하고, 내가 아닌 아
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계망들이 생성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정경수,
임부연, 김경애, 2016).

홍교사는 이제 출퇴근길에도 혼자가 아닌 두 아이와 함께하며 눈 코 뜰 새 없는 엄마교사로서 발돋움하게 되었다. 그것이 감사이고 행복이기도, 또 고달픔과 지침과 갈등과 힘듦의 연속이기도 하다. 자녀는 엄마에게 있어 삶의 일부가 된 것이다. 함께 더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며 안타까움은 어린 두 자녀의 몫으로 남겨진 듯한...

마. 슈퍼우먼 엄마선생님

연약한 에너지를 가진 ‘엄마’는 우리 사회에서 초인적인 힘을 가진듯한 제3의 성처럼 여겨지고 담론화되고 있다. 직장을 가진 엄마라면, 적어도 엄마, 아내, 며느리, 딸 등의 서너 개의 이름을 가진 여성부터 많게는 그이상의 직장에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홍교사의 일과는 이러하다.

나는, 그러니까 남편이 도와 줄 때에는 아침에 한 일곱 시, 여섯시 반에서 일곱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나는 밥 먹을 준비를 먼저 하지. 그러니까는 남편 도시락 챙기고, 애들 도시락 통 챙기고 뭐 밥 먹을 준비 하고 애들 오후에 간식 먹을 거, 또 이래 싸들고 나가야 되니까, 유치원. 아니면 체육관으로 가면은 체육관으로 보내 줘야 되니까. 해서 그거 준비하고. ... (중략) ... 이제 그제서야 나는 씻고, 내 씻고 내 옷 입고, 그러니까는 화장이고 뭐고 그런 거는 거의 없고, 그냥 마 딱 기본적으로만 하고, 옷 편하게 입고 ... (중략) ... 그렇게 해서 출근을 하고 나면, 애들 데리고 출근 하제, 해가지고 들어서자마자 도착하면은 이제 유치원에서 바로 뭐 회의 같은 건 없으니까 바로 교실로 들어가서 교실 정리정돈 하고 애들하고 맞이하고. ... (중략) ... 이제 수업 준비 하는 거지. 그날 수업 하고, 애들하고 활동 하고, 마치는 시간이 여섯시 반에

정확히 마칠 때에는 반에 나오지만은 주로 그럴 일이 거의, 뭐 행사 끝나고나 바로 그 직후에 일주일 정도지 그 나머지는 뭐 주로 일곱 시에 퇴근한다 해도 일곱시에 퇴근을 하면은 애들 데리고 내가 와야 될 때에는 데리고 퇴근을 해. 데리고 퇴근을 하면은 집에 들어오면 일곱시 반 이래 되니까 그나마 집이 가까우니까 거리상으로는. 그래서 조금 일찍 들오면 들어오자 말자 바로 애들을 빨리 옷 벗기고 씻기면서 나는, 내가 씻기고, 다 씻겨 놓고 내 혼자 있을 때에는 씻기고 그 다음에는 밥 먹을 준비, 나도 다 씻고, 그러고 나면 한 여덟시 반이잖아, 그러면 여덟시 반 되면 밥 먹을 준비 해 가지고 여덟시 반에서 아홉시, 그 사이에 밥을 먹지. 어찌다가 한 번 왜, 체육관에 애들 보내 놓고 와서 좀 일찍 마칠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내 혼자 먼저 집에 오면 여섯시 반, 일곱 시가 될 때가 있는데, 본인은 마쳐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야 하는 시간이 여덟시 반에서 아홉시에 퇴근을 하거든, 그러면 내 혼자만 있는 시간에, 고 시간에 그럴 때 잠시 나도, 쌤처럼(이교사) 집에 들어오면 내 혼자 여유롭게, 여유롭게는 아니다. 바쁘게가 되지. 바쁘게 청소 막 해놓고 (신랑이랑 애들) 오기 전에 내 퍼뜩 씻고 밥 준비 해놓고 뭐 해놓고 딱! 맞이하면은 내가 챙겨줄 수가 있잖아, 그래서 빨리빨리 하게 되니까.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지는 않지(개인시간의 여유 없음).

(2016.12.3. 인터뷰)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요구되어지는 능력자의 모습에 부합하기 위해 슈퍼맨일 수 없지만, 슈퍼맨 같은 일과들과 삶들을 소화해내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엄마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라는 질문에 홍교사는 자신의 모습과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

슈퍼 우먼. 슈퍼 우먼? 근데 슈퍼 우먼도 맞는 것 같고, 슈퍼 아빠도 맞는 것 같아. 슈퍼 아빠나, 슈퍼 엄마나. 요새는 아빠도, 왜냐면 나는

우리 오빠들을 보면, 작은 오빠는 모르겠는데 큰 오빠는 보면, 언니가 일을 하니까 본인도 많이 돕더라고. 같이 함께 하고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지금은 남자의 어깨도 많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여자나 남자나 똑같다고 생각해. 쌍방이 서로가 힘들지 않겠나. 하지만 쌍방이 잘 살 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사회는 10년 전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 지금은 아빠들도 다 잘 해야 되고. 바깥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 하고. 엄마도, 바깥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나는 그렇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어떤 가정은 아닌데, 어떤 가정은 그래도 아빠가 엄마랑 함께, 비슷비슷하게 함께 지금 가정을 잘 도와주고 있거든.

(2017.1.7. 인터뷰)

그리고 엄마교사로서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 학부모들과의 관계에서도 조력자,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엄마교사로 존재하여야 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달라지고, 한 두명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자녀 중심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엄마들조차도 우리가 보듬어 안아야 한다는 말이 맞는 거야. 소위말해서 우리는 아이를 상담을 해 줘야 되기도 하지만, 엄마의 생활을, 소위말해서 부모와 함께 아이를 상담하는 게 아니라, 부모, 엄마와 함께 그 엄마가 겪고 있는 과정들 속에서 가정사 이야기까지도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상담자 역할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요즘에 이 교사들은, 젊은 교사들이 그게 되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함께, 대화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간에 힘든 점이 생기는 거지.

(2017.1.7. 인터뷰)

작심 3일이 될지라도 3일 만에 무너진 계획을 다시 세워 도전해 보는 유치원 교사, 우리 아이의 엄마, 우리 부모님의 딸,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 보아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2017. 1. 24. 홍교사 반성적 저널-인터뷰 소감문 중에서)

자녀들을 챙기고 남편을 챙기고 출근 준비를 하는 아침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일과 중에도 자녀에게 일이 생기거나 아프면 엄마가 챙기고 돌아보아야하고, 퇴근한 후에도 자녀와 가정을 돌아보는 일까지, 그리고 오히려 일을 하며 커피를 마시는 컴퓨터 앞자리나 낮에 못다한 가위질을 하는 시간이 개인 시간이며 여유인 것이다. 맛벌이로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 부부이지만, 아빠는 가장으로서 부담은 있겠지만, 직장의 일만 신경을 쓰고 집은 휴식하는 곳이다. 하지만, 엄마는 직장에서 퇴근한 이후로 집에 와서도 다시 일의 시작인 것이다. 워낙 시대가 변하고 많은 배려와 함께 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서로 돕고, 남편이 가사와 가정 일을 ‘돕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 ‘나의 일’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 아빠의 출근은 운전을 하여 직장으로 향하는 하나의 길이지만, 엄마의 출근은, 남편 챙기고, 자녀들 챙기고, 나는 대충 챙겨서 헐레벌떡 뛰쳐나가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다. ... (중략) ... 그리고 아이들이 잠들때쯤 컴퓨터에 앉아 일을 하거나 못다한 일들을 하며 나의 하루를 마무리 하고, 평가인증이나 특별한 다른 일들이 있을 때에는 이 일상조차 깨져서 집에서도 직장 일을 하는 엄마가 된다.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에 비하면 아주 여유롭고, 정시퇴근하며 행사도 거의 없는 법인 어린이집에 다니는데도 나의 일상에 나의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다. 그나마 자녀들이 많이 자라 내 손을 덜 필요로 하고, 이렇게 공부하며 나에게 투자하고, 이 학업을 통해 나의 개발을 하는 시간이 나의 시간들인 것이다. 엄마교사의 시간은 기관과 기관의 아이들의 시간이고, 엄

마의 시간은 거의 대부분이 가족을 위한 시간이다.

(2016.12.3. 연구자 일지 4.)

우리들 각자는 제공할 수 있는 제한된 양의 사랑만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왜냐하면 사랑은 쉽게 얻어지거나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생 모두에게 마음을 쓴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한다. 그러나 사랑은 천천히 자라나며 스무 명, 삼십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펼쳐질 수 없는 관심과 노력을 요구한다(Goldstein, 2001).

한국 사회에서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은, “슈퍼우먼”이다. 자신만 챙겨서 출근하면 되는 아빠와 달리, 엄마는 아침부터 바쁘다. 남편을 챙기거나 자녀들을 챙기고, 헐레벌떡 두 아이를 또는 아이를 데리고 뛰쳐나가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직장에서는 아이의 일이나 아이가 아픈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배려를 구하며 직장인으로도 엄마로도 자리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퇴근 후에도 자녀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챙기고, 돌아보아야하는 것. 우리집도 그렇다. 남편과 함께 쉬는 날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하거나 가족의 대소사를 챙기는 경우가 많지만, 남편이 쉬는 날은 그야말로 ‘쉬는 날’이다. 하지만, 아내이자 엄마인 내가 쉬는 날은 ‘못 다한 일을 하는 날’이 된다. 아빠는 리모컨을 들고 뒹굴뒹굴 하거나 잠을 폭~자기도 하지만, 엄마인 아내는 온갖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하여 몸이 먼저 움직인다. …(중략)… 그래서 홍교사가 이야기 했던 것처럼, 맛별이를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부모님이 키우는 아이들은, 그 부모님 까지도 품고 상담하며 함께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사랑과 따뜻함이 부족하고 여유가 빈곤한 사회가 아닌가 한다.

이런 사회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사로 산다는 것은, 여유 없음으로 인해 점점 이기적이어가고, 내것, 내 자녀, 내 상황만 주장하는 부모님들과 그 밑에서 자란 아이들을 향해 ‘함께’를 외치고, ‘배려’

를 가르치며, ‘더불어’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 하고 또 이야기 하고 부모까지 함께 토닥이며 교육하여야 하는 자리다. 물론,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며 다양한 엉뚱하고 황당무개한 일들이 생기지만, 이해시키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소통하고, 아이의 교육을 위해 부모의 변화부터 시도하는 자리다. 그러다 교사의 의도와 교사와의 소통이 되지 않으면 온갖 막말과 기관땃, 담임 교사땃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온갖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통해 서로 공유하고 부모들끼리 소통하며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젯거리 삼기도 한다. 신발을 거꾸로 신고 왔다든지, 선생님이 차량에서 내려주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집에서 생긴 상처를 원에서 다친 거라며 우긴다든지, 집에서 물린 모기자국을 어린이집에서 더 물려 왔다든지, 부모가 챙겨주지 못하는 것을 선생님은 챙겨달라고 한다든지 하는 등 우리 사회의 부모의 모습과 교사를 대하는 모습은 참 많이 달라져 있다. 부모와 교사의 신뢰관계가 신임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엄마교사는 훨씬 유리하고 경험을 비추어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좋은 면들도 많다. 그러나 그러기까지는 학부모님과 신뢰를 쌓기 위해 아이를 위한 부모교육을 끊임없이 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에서 엄마로 돌아오는 가정에서의 시간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낸 방전된 엄마의 모습이지만, 엄마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쁜 일과를 마무리 하며 가족을 챙기고 집에 와서도 바쁘고 무리하며 애쓰고, 몸살하며 ‘슈퍼우먼 엄마’로 살아간다. 우리 사회는 슈퍼우먼 엄마선생님을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이끌면서 적절한 보상이나 처우나 복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2016.12.31. 연구자 일지 6.)

홍교사는 슈퍼맨일 수 없지만, 슈퍼맨을 요구하는 사회에 부합하여 슈퍼우먼으로서의 삶을 자의든 타의든 살아가고, 살아내고 있는 중이며, 여전

히 애쓰고 있는 엄마 선생님이다. 헌신은 솔직하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어머니 노릇과 가르치는 일 모두에 결정적인 부분이다. 열정은 행동을 부추기는, 성과 무관한 에너지이며 추진력이다.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은 그들의 일과 교실 삶 그리고 그들의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에 대해 열정을 느낀다. 어머니로서의 사랑처럼 교사로서의 사랑은 친밀, 헌신, 그리고 열정에 의존한다(Goldstein, 2001).

홍교사의 일상은 열정으로 넘친다고 하지 않아도 그 역동감과 일과가 눈에 그려지는 일상이다. 두 자녀와 함께 하고 남편을 챙기는 바쁜 아침부터 유치원에서 직위상 중간자의 위치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사로 또, 퇴근하는 순간과 그 이후의 가족을 두루 살피는 개인의 시간이 가족을 위한 시간일 만큼, 슈퍼우먼이지 않으면 소화해 낼 수 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바. 감사하며 소망하다

홍교사의 인터뷰 중에 홍교사가 자주 사용한 단어와 말들이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감사하다, 나 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지 않겠나? 나는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들이었다. 꼭 반어법을 사용하듯, 또는 현실의 고달픔과 피곤함 들을 오히려 현실의 살아감에 감사하고, 만족 아닌 만족함으로 승화하듯 홍교사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힘들 것으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하냐!”는 식의 자기만족과 현실 긍정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엄마교사로서의 삶을 씩씩하게 이어가고 있었다.

8시 반에 마쳐서 애들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데려다 달라 해서

내가 받았는데 그것도 가능한게 정말 근처니까 정말로 그래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고, 정 안되면 신랑 체육관이 마침 내 집과 내 직장과 근처였기 때문에 신랑에게도 아이를 보낼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참 좋았던 것 같애. 그래서 여자가 직장을 구하는데 신랑의 직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진짜 많이 느꼈지. …(중략)…

물론 나는 그게 가능하니까 오게 했고, 원장선생님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다니는 여자들은 그게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나 그래서 또 감사하게 되는 거고, 우리 애들은 밥을 굶을 때도 있지만, 엄마한테 올 수 있고 엄마 옆에 일단 같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힘들고 내가 힘든 것도 내가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참 고맙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2016.11.19. 인터뷰)

교사의 생일이라고 그것도 챙겨 주고, 그 마음이 좋아서. 그래서 나는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해. 원비? 그래서 고맙다고. 하나도 안 낸다고. 애들 끼는 하나도 안 낸다고, 진짜. 하나도 안 내고, 그냥 애들은, 그냥 갔다 왔다만 하고. 그래서 원장님께 더 고맙다고.

(2016.12.3. 인터뷰)

자기만족이고, 나는 사실, 결혼해서 직장 생활 하는 게, 여자로서 결혼해가지고, 잠시 쉬는 기간이 얼마 없었잖아?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좋고, 오히려 근데 이제 일적인 면에서 가정생활까지 병행을 해야 되니까 힘든 점은 있어. 근데 힘든 만큼 얻어지는 노력도 있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 얻어지는 그게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으니까, 참 그 때 당시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게 나를 일 할 수 있게 해줬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참 잘했네, 그 생각이 드네.

(2017.1.7. 인터뷰)

그래도 좋았어.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서 좋았어. 나도, 나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 할 수 없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같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고맙더라.

(2017.1.14. 인터뷰)

나는 홍00입니다.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을 가졌고, 두 아이의 엄마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교사경력을 적당히 가진 홍00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된 나의 위치와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익어가는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 보려합니다. 유아교육에 대하여 깊이 있게 모르고, 정책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의 현실이 가슴 답답함을 느끼게 해 주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도 하게 된 점에 대하여 뿌듯함을 느낍니다. 한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도 푸는 덤도 얻어갑니다.

(2017.1.24. 반성적 저널-인터뷰소감문 중에)

결혼과 자녀를 낳고 키우기까지 세월을 지나오며 옆에서 함께 있으며 힘들고 어려웠던 일, 울고 고민하며 괴로워했던 일, 함께 분노하며 안타까워했던 일들이 수많이도 있었는데, 선생님들은 오늘 인터뷰를 하며 ‘감사히 지금에 와있다.’ 고 말을 한다. 지치게 하기도 하고, 대우를 해주지 않은 많은 일들로 실망도 많이 했었는데, 지난날을 되짚어 보며 ‘그때가 그래도 좋았었노라’ 며 그 시절을 되짚는 모습이 오히려 귀감이 되기도, 지금의 지치는 마음과 몸이 안타깝기도 한 시간이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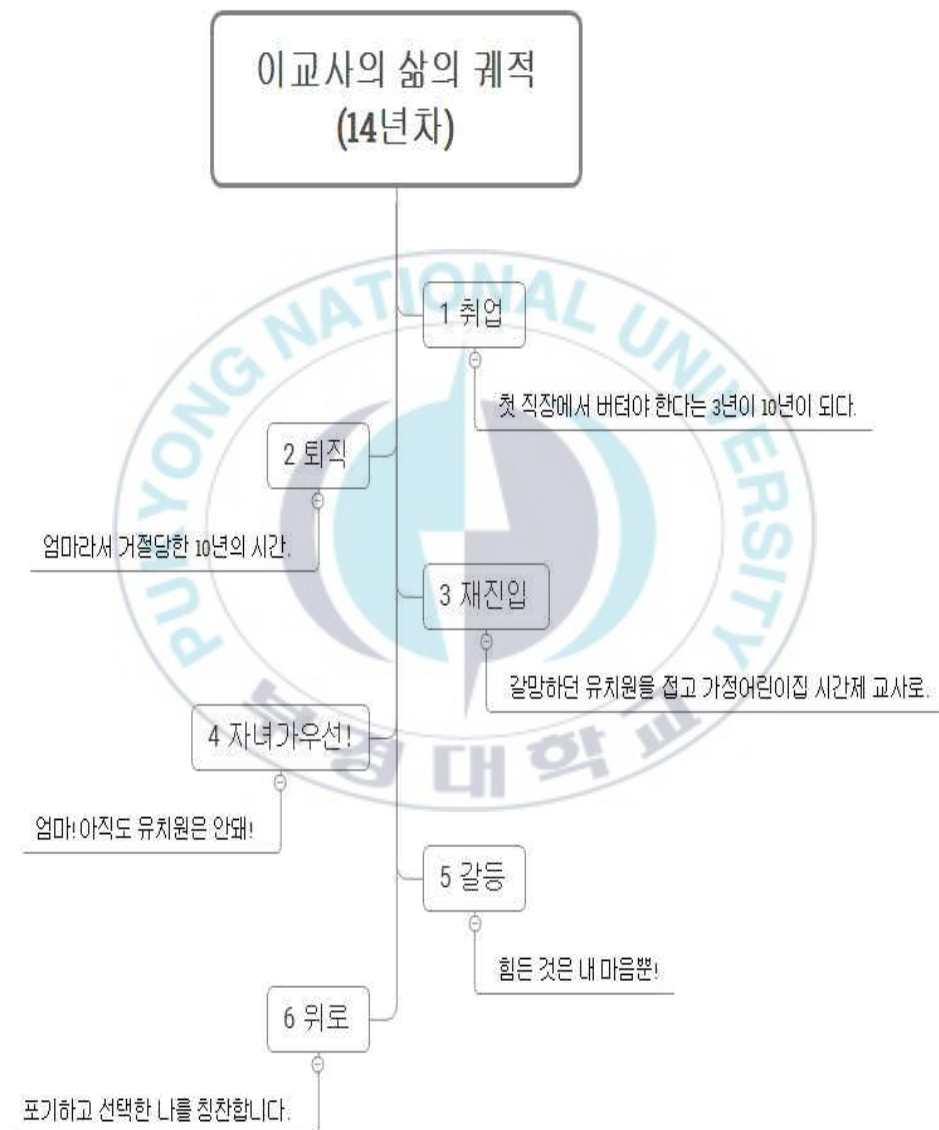
(2016.10.1. 연구자 일지1.)

서동미, 전우경, 엄은나(2008)는 ‘좋은 교사’의 의미를 탐색하면서 “나는 높은 산을 오르고 있다. 하나의 고개를 넘고 나면 또 하나의 고개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와의 고독한 싸움을 해야만 이산을 넘을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올라야하는 산이라면 이 싸움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내가 처음 선택한 유치원 선생님의 길을 아름답게 마무리 하고 싶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 감수해야겠지”라는 교사 저널을 인용한 바 있다. 홍교사 또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감사하고, 뿌듯해 하며 더 나은 질적 개선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여전히 교사의 자리에서 미래에도 교사일 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 타인과의 협력 및 잘 가르치는 것에 중요성(서동미 외, 2008)을 두는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소망하는 엄마 선생님인 것이다.

2. 이교사 이야기

이교사의 14년의 교직 생애를 가지고 있다. 첫 직장에 취업하여 3년만 버티라는 오빠의 말에 순응하며 10년 동안 배움과 가르침의 뿌듯함을 가지며 생활하였다. 한 유치원에서 10년의 근무 중 결혼을 하고, 임신하여 출산 때가 가까워서 퇴직과 근무연장을 고민하였다. 유치원측에 출산 후 근무조건을 제시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고 엄마교사로서 퇴직을 하게 되었다. 늘 유치원을 갈망하며 출산 후에도 재진입을 원하였으나 자녀가 우선인 이교사는 유치원에 대한 꿈을 잠시 접고 가정어린이집 시간제 교사로

근무하였고 현재도 근무 중이다. 이교사의 자녀가 “엄마! 아직도 유치원은 안돼!” 하고 말하는 것에 이교사는 자신의 마음만 힘들고 갈등할 뿐, 현실에 순응하고 감사하며 스스로를 위로 한다.



[그림 2] 이교사의 삶의 궤적

가. 첫 직장에서 버텨야한다는 3년이 10년이 되다

교사의 교사로서 ‘있음’에 대해 하이데거의 이론을 빌어 김성숙, 임부연 (2012)은 유아교사는 현 존재로서 유아의 곁에 있는 자라고 정의한다.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있음’에 관한 맥락은 교사의 교사로서의 있음을 밝혀준다. 즉 교사의 교사로서의 있음의 방식은 ‘있음’의 동일 근원인 ‘내던져져 있음(Geworfenheit)’과 ‘떠맡음(überantwortet)’ 그리고 ‘불안(Angst)’과 양심(Gewissen), ‘염려(Sorge)’와 ‘배려(Besorgen)’라는 실존적 사건을 통해 드러난다(Heidegger, 1977/1998).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사유를 따라갈 때 교사는 유아교실이라는 세계 속에 ‘내 던져진’ 존재이다. 그러나 교사는 그 내던져져 있음의 상태에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상황을 기꺼이 ‘떠맡음’으로써 그 ‘내던져져 있음’을 다양하게 변형하고 생성하는 창조적인 존재인 것이다(김성숙, 임부연, 2012).

이교사의 첫 직장은 실습으로부터 시작하여 함께 실습을 하고 부담임을 했던 두 동료와 떠나고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어...저는 처음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고등학교때 제가 아이들과 같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어 유치원 선생님을 하면 더 잘 어울리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유아교육과를 선택하고 ...(중략)... 학교를 졸업하고 첫 부담임을 하고 저는 원래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S유치원의 그런 배경이 흠도 있고, 모래도 있고, 좀 자연적인 분위기라서 저랑 좀 잘 맞아가지고 아이들과 밖에서 첫 일 년을 부담임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바깥놀이로 지내면서 뛰어놀고 술래잡기하고, 뭐 줄넘기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잘 지냈고, ...(중략)...

일년을 참 행복하고 잘 지냈던 것 같고, 마무리 할 때쯤 위에 담임 자리가 비어서 원장선생님하고 이야기 할 때 너가 같이 있으면 어떨겠노? 하고 이야기 하셔서 처음에는 혼자라서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집에 가서 어 나는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겠다 언니도 가고 친구도가고 해서 나도 못 있겠다. 했더니 오빠가 무슨 소리하노 첫 직장에서 3년은 버텨야지 사회생활하면서 1년 일하고 그만두는 데가 어디있노! 그래가지고 그 말을 거역할 수 가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하고 원장선생님께 저도 내년에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담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 (중략) ... 위에선배들이 가르쳐주고 원장선생님이 또 가르쳐 주고하면서 진짜 많은걸 배웠고, 내가 조금더 해보고 싶은 것도 해보고 처음 부담임때 선생님이 그때는 방통공부도 하고 차도타고 오고 또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밑에 있는 일들을 하면서 좀 힘들게 있었는데 수업안도 써온나, 부분수업도 함 해봐라, 그렇게 하니까 또 부분 수업안을 써 왔는데 또 수정-! 수정! 수정! 수정! 그렇게 하니까 그땐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참 많이 여러 가지를 해 봐가지고 담임이 돼서도 좀더 도전해 볼일은 있었고, 또 일 년에 한 번씩 자율장학 연구수업 하면서 그거 준비하면서 좀 부담은 많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배우고 선생님들하고 수업공개하고 열심히 한 것 부족한 것 이야기 나누어서 그걸 또 수정하고(피드백) 그렇게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다 아이들한테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도전할 수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10년을 S유치원에서 일을 했고,

(2016.10.1. 인터뷰)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던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신 원장선생님과 선배 선생님... 모두 감사하는 기회가 되었네요. 그 분들로 인해서 부족하지만 조금은 더 나은 교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ㅎㅎ

(2017.1.25. 반성적 저널-인터뷰소감문 중에)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이라 생각했던 선생님들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과 어릴적 대학생일 때의 풋풋한 꿈들을 볼 수 있었고, 과거를 들여다보며 현재를 살고 있는 어른이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었다. 연구 참여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 서로 어색하긴 했지만, ‘나를 돌아보는 시간’ 이 되었다. 나의 꿈, 나의 모습,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들을 말이다. 어쩌다 선생님이 된 것이 아니라 꿈을 꾸며 교사가 되었고, 어쩌다 어른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 세월이 둥글 둥글 다듬어 어른으로 만들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여전히 갈구하는 바가 있고, 여전히 열정과 열심이 있고,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고민하는 우리는 ‘엄마인 교사다.’ 한해 한해의 경력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선배교사들의 말과 원장님들의 말과 결혼과 결혼 후의 상황들이 교사로서의 삶을 고민하게 하고, 교사로서의 삶을 지지하기도 한다.

(2016.10.1. 연구자 일지1.)

이교사의 20대 초반의 첫 직장 생활은 ‘혼자 남겨짐’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10년이 넘는 S유치원의 후배들과 함께 모임을 이어나갈 정도로 선배로서의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같이 부담임을 시작한 동료 교사들을 뒤로 하고 혼자서만 채용되어 그만 둘 것을 고민하며 오빠의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임을 시작한 생활이 1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어가는 인내와 자신과의 싸움과 ‘교사로 있음- 던져져 있음’의 존재 자체였다.

미혼교사로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으며 교사로서의 자질과 교사로서의 헌신과 노력을 다하였던 10년 세월이었다.

나. 엄마라서 거절당한 10년의 시간

Foucault(1990)의 이론에서 권력은 관계적이고 그 관계는 자유의 실천을 논리적으로 전제한다. 따라서 저항은 권력관계에서 필연적이다. 이때 자유의 실천은 푸코에게 윤리적 주체의 형성으로 나타난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원칙에 순응하는 인간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자기의 배려를 삶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박병락, 2000)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교사는 10년의 시간이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투자한 것이고, ‘교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걸음 한걸음 배움의 자세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갖게 되는 변화들을 경험하며, 미혼 교사로 있을 때와 다른 대우를 받고, 조건과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다.

그곳에서 결혼하고 일을 계속하다가 아이가 생겨가지고 낳을 때가 되어서 처음에는 제가 식구들이 천정에 있는 식구들이 근처에 없으니까 아이들 어떻게 키우지? 하는 고민이 많았는데 시댁 쪽에서 그럼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좀 안되가지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 (중략) ... 원장 선생님한테 좀 내가 키우고 싶다하고 그만 두겠다고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그만 두는 것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일을 계속하면서 찾는게 더 낫지 않나 말씀을 하셔서가지고 유치원 측에 종일반으로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종일반 선생님 일을 하면서 서류적인 일을 배우고 싶다 답임보다는.. 그렇게 했더니 유치원 측에서 그럼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받아줬으면 그곳에서 일을 계속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했을텐데, 아 그건 안된다고 하셔서가지고 그럼 다시 또 그만두겠습니다. 했더니 또 좀 있다가 그래도 계속 일을 하는게 어떻겠노? 해서 또 생각하다가 아이는 어리지만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맡기고 그 다음, 원감 자격 연수 서류를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욕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 올해는 한번쯤 일을 더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했는데 이사장님이나 원장선생님께서 본인도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니 그렇게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하시면서 아이를 열심히 키워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원감 자격을 따고 나가고 싶었는데 짤렸죠 뭐. S유치원에서 생활했던 10년을 마무리 하고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가 항상 마음은 생각했어요. 나도 유치원에서 가서 일하고 싶은데.

(2016.10.1. 인터뷰)

이교사 역시 결혼을 하고 임신하여서도 임신하지 않은 교사들보다 어찌면 더 열심히 자신의 일들을 해나갔었다. 이미 선배교사로서 후배 교사들에게 가르치고 나누며 이끄는 입장이었고, 유치원 역시 십년을 몸담았던 곳이라 익숙하고 애착도 있던 터라 아이를 낳고 원감연수를 받으며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 했었다. 그러나 역시 아이를 키우는 부모 교사를 원하지 않았고, 유치원의 행사와 일을 하는 데에 힘들 것 이라고 생각한 유치원 측에서는 원감 연수 신청 넣어놓은 것 발표 나고 받을 때 까지만 이라도 근무하고자 했던 이교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2016.11.19. 연구자 일지2.)

Foucault의 이론에서 ‘권력은 관계적’ (박병락, 2000) 이라는 의미가 이교사의 경우 권력에 의해 자유의 실천을 논리적으로 전제한다는 실천적 자아를 자녀를 위하는 일, 자녀를 위해 선택하는 길을 선택했고, 그것의 결과는 열심히 일하고 헌신 투자 하였던 시간들에 대해 ‘거절’ 당한 셈이 되었다. 그 당시의 사립유치원의 분위기인 기혼 교사는 유치원을 그만두는 일에 대해 이교사 나름의 방법을 생각하고, 꾸준한 자신에 대한 보상과 결과물처럼 원감 자격 연수를 받고 싶어 원의 입장을 고려한 제안을 하

였으나 10년의 헌신이 무색할 만큼의 퇴직을 당한 듯한 자발적 퇴직을 하게 된 것이다.

다. 갈망하는 유치원을 접고 가정어린이집 시간제교사로

엄마됨을 경험한 교사들은 교사로서 살아감과 동시에 임신과 출산, 양육을 몸소 겪는 엄마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엄마-유아교사들은 대체 불가능의 막중한 책임과 탈 은폐된 양육의 일과 가치, 나를 넘어서게 하는 힘을 발견하는 체화된 경험을 통한 성장을 하고 있다(정경수, 임부연, 김경애, 2016). 이교사 역시 미혼 교사일 때와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면서도 교사로서의 면모를 다듬어 가고 교사의 직을 수행하고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갈망하고 원감자격 연수에서 접어야 했던 꿈을 살포시 펼쳐 자녀를 양육하며 할 수 있는 선택으로 자신과 또 사회와 타협하는 접점을 찾는다.

주위에도 이야기 하고 하다보니까 전에 있던 원장선생님께서 유치원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너가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아이도 데코 갈수 있으니까 이 가정어린이집 일을 잠깐 도와주는 건 어떨겠노 말씀하셔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에는 두 달 도와주러 갔는데, 내가 생각하던 유치원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건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한테 난 근데 마음은 유치원에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아이를 양육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하니까 지금 현재도 가정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

요.

(2016.10.1. 인터뷰)

처음에는 아이를 놓고, 집에서 양육하다가 유치원에 제가 일을 했던 곳이 유치원이기 때문에 유치원에 가고 싶어서 아이가 첫돌 때쯤 다른 유치원에 면접보고 갈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너무 멀어, 돌도 안된 아이를 데리고 갈려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아 그쪽은 안되겠다 해가지고 집 바로 옆에 어린이집에 면접을 보고 갔었는데 일을 하다가 제가 둘째가 임신이 됐는데, 어 임신이 조금 순조롭게 잘 안되면서 유산하면서 거기는 한 한달 반 정도 있다가 그만두고 집에서 첫아이랑 같이 생활하다가 다른 원장선생님소개로 도와주러 어린이집으로 잠깐 도와 줄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현재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2016.11.19. 인터뷰)

결혼 전과 후의 달라진 가장 큰 것이 유치원 현장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는 것 이였습니다. 마음은 유치원 현장으로 가고 싶었으나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주위의 도움 없이 오롯이 혼자서 헤쳐 나가기엔 업무량이 너무 많아 힘들어서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으로 바꾼 가장 큰 이유였지만... 어린이집 근무를 하면서도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유치원 교사보다 쉽게 자격을 취득해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며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는다' 는 편견, 사회적인 인식과 대우로 인해 유치원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네요.

(2017. 1. 25, 반성적 저널-인터뷰 소감문 중에)

유치원교사로서의 자부심대 낮은 자존감. 엄마교사로서의 자부심대 더 자신을 체찍질하는 모습. 엄마교사의 자녀로 혜택보다는 더 손해 보

듯 엄마를 보아도 지나쳐야하고, 다른 아이를 더 반가이안아주는 엄마의 모습. 이교사가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보육과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스스로 가지는 생각들과 마음중심과 달리 느껴지는 외부적인 시선들.

(2016.12.17. 연구자 일지 5차.)

자신의 직업을 전문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지는 여성적 이미지를 상실해 가는 것과 함께 교사로서 생명감을 함께 상실해 간다는 직업의 생명성은, 유아교사가 나이가 어려야 한다는 사회적 편견이 유아교육 현장에서 자신의 몸을 통해 나타날 때의 두려움은 유아교사를 주눅 들게 하는 가장 위협적 요소이다.

현재 교육학과 유아교육에 가장 주요하게 거론 되는 돌봄과 해방의 두 페미니즘 담론에 내재한 역설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유아교사가 여성으로서 감내해야 할 노동의 본질과 연관 지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욱 뚜렷이 부각되며 유아교사로서 교직경력이 늘어가면서 여성성이라는 강한 정신적 자원이 오히려 교직을 위협하는 요소로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라. 엄마, 아직도 유치원은 안 돼!

이교사는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과 열심과 뿌듯함과 보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엄마교사로서 더 나아가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미련과 애뜻함이 남아 있다. 보편적 여성성을 유아교사들은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으로 그리고 생명을 키우기 위한 '배려'의 마음을 설명한다.(임부연, 최혜림, 2006) 이와 같이 이교사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우선순위

에 두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성취와 나아감의 기준을 바꿈으로 인해 배려와 헌신을 선택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스스로 결정하였지만, 아쉬움이 남고 미련이 남는 일에 대해 도전과 재진입의 희망과 여지를 두고 고민하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자녀의 반대와 스스로의 선택으로 현실에서의 최우선을 생각하고 실천하며 생활하고 있다. 10년 전의 아쉬움을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동료들에게 묻고 정보를 얻으며 말이다.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가 항상 이런 생각은 했어요. 나도 유치원에서 가서 일하고 싶은데. 나도 일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항상 있고 주위에도 이야기 하고 하다보니까 전에 있던 원장선생님께서 유치원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너가 일을 하고 싶어하니까 아이도 데코 갈수 있으니까 이 가정어린이집 일을 잠깐 도와주는 건 어떻겠노 말씀하셔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에는 두달 도와주러 갔는데, 내가 생각하던 유치원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건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한테 난 근데 마음은 유치원에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아이를 양육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하니까 지금 현재도 가정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교사 자녀1: 그게 아니라 내가 못 가게 하잖아

맞아요 가고싶어 했는데 첫아이가 초등학교 가니까 좀 많이 컷다 싶어서 유치원으로 갈려고 했는데 첫아이가 “엄마! 아니 지금 가는 건 안좋은 것 같아” 해서 아!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 까지는 가정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좀 적응이 되면은 새로운 곳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교사 자녀1: 엄마! 2학년도 안돼 2학년도 안돼!

(2016.10.1. 인터뷰)

그리고 유치원에 가는 것은 엄마가 일찍 가고 늦게 집에 와야되고
네가(자녀가) 조금 더 학원을 가야되고 그런 것을 말하니까 안해 봐놓
으니까 두렵겠죠! 그리고 항상 또 엄마랑 같이 있던 습관이 있으니까
자기 혼자 뭘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엄마 유치원에는 가지
마” 그렇게 말하니까

(2016.11.19. 인터뷰)

응 맞아요. 그래가지고 엄마, 어린이집에 다녀와, 그 말이 18번이지.
(유치원가지 말라는 이야기 이지.)

(2016.12.17. 인터뷰)

그래서 나도 유치원으로 아직까지 못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애들
봐봐요 유치원 가는 것 아직도 안된다고 엄마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
내가 유치원으로 출근하면 늦는다는 게 뻔하니까 주말이 보장 되지 않
을 수도 있고 …(중략)… 유치원을 가면 늦게까지 일할 걸 각오하고
가는데 우리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기도 하고 남편은 맨날 일주일에
절반 이상을 출장을 가니까 거의 내 혼자서 육아를 거의 감당하는 거
니까. 유치원에서 경력 많은 엄마교사가 살아남는 건 어려운 것 같아
요.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지 돈은 많이 줘야하지 나처럼 유치원을 떠났
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두려운 일인 것 같애 계속 쭈욱- 일했으면
몰라. 사실 유치원으로 가면 아이들 돌보는 것을 포기 하는 거지

(2017.1.14. 인터뷰)

이교사가 꿈꾸고 늘 익숙하게 생활해 왔던 그곳으로의 귀환! 다시 유치
원으로의 재진입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잡고 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적절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는 적절한 시기의 적절한 기회를 만들어서 말이다. 그러나 이교사는 여전히 자녀를 키우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있었으며, 이제 많은 세월 많은 시간이 지나 재직입시 겪게 될 달라진 동료교사들과 오랫동안 가지 않았던 본인의 자리로 돌아감에 대해 두려움과 걱정과 호봉 많은, 원감 자격 연수를 앞둔 교사로서 채용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에 싸여있다.

마. 힘든 것은 내 마음뿐

이교사는 10년 동안 유치원 근무를 하며 어린이집으로의 이직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는 것은 당연하며 어린이집이 아니라 유치원의 교사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의 자부심 또한 강한 것이 유치원교사들의 심리이기도 하다. 더불어 교육부라는 소속감이 주는 자부심과 관리체계가 어린이집보다 체계적이라는 점에서 더 전문성을 가진 체계적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존재한다.

그냥 내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간다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항상 유치원이 더 낫다. 유치원이 더 바른 교육을 하고 그런 마음인데 그 마음이 가장 힘들지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힘든 것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내가 가정어린이집에 있으니까 지금 몇 년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곳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원장선생님이라든지 선생님들과 관계가 되놓으니까 내가 우리 아이가 아프면 조금 늦게 가는 것 그런 것에 있어서는 서로 배려를 해주고 또 아이들 행사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시간을 빼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감사한 일이라

서 그런 환경적인 것에 있어서는 힘든 것은 없고, 항상 제 마음이 문제
예요. 하하하

(2016.11.19. 인터뷰)

또 다시 어린이집 있다가 처음생각에는 1~2년 아이가 크면 나도 유
치원에 가서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아이가 엄마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니까 어 아닌가 그럼 조금 더 어
린이집에서 있어볼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시
간이 벌써 4년이 흘러가뵈어요. 저는 재취업은 힘들지는 않았어요. 유
치원으로 갈 수 없는 상황과 마음이 힘들었지..

(2016.11.19. 인터뷰)

이희정(2010)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때, 경제적인 요인보
다는 자아실현, 자기개발, 노후준비 등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자 하는 욕구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특히 홍예림(2015)은 다른
직업에 비해 유아교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안정적인 이미지와 긍정적인 구
변인식이 복직을 희망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최
근 개선되고 있는 유아교사직의 매력요인과 연결하여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움, 성장과 변화를 도울 수 있다는 보람과 성취감 등은 다른 직업에서
쉽게 느낄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교사가 다시 현장을 선택하게 되는 유
아교사만의 매력인 것으로 나타났다(하지수, 2017).

그리고 제일 힘든 것은 내 마음의 문제 항상 유치원에서 일하는 선
생님들 보면 아! 나도 유치원에 가서 일하고 싶는데 심리적인 것 그래
서 항상 주위에 “선생님 유치원 좋아요? 어린이집이 좋아요? 선생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는 일에 대한 불안한
것 또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유치원에 가서 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일 힘든 것 보다는 그런 내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2016.11.19. 인터뷰)

근데, 유치원이나 민간 법인? 다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그냥 대우? 인식? 그런 게 조금, 우린 항상 생각하잖아. 유치원은 그, 교육과정에 맞추어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고, 어린이집은 보육만 하는 곳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많았지. 근데 나는, 내가 이 어린이집에 안 왔을 때에는 그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다 그냥 보육만 하지, 무슨 교육을 하겠노.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대로 애들을 이렇게 조금 기본 생활 습관교육을 필요한 거는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의 교육관이 있으면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근데, 원장님의 성향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원장님이 제대로 교육관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건 진짜. 단순히 보육만 하니까, 진짜. 어린이집은 좀, 제대로 안 된, 사회 인식적인 면에서도, 그냥 쉽게. 교사라기보다 그냥 돌봐 주고, 보육해주고, 이런 의미?

(2016.12.17. 인터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관도 확실하게 보육이지만, 교육도 하는 그런 곳으로 그러면 나도 유치원에서 다시 일할 수 있으려나 하하하하

(2017.1.14. 인터뷰)

이교사가 경험하는 어머니인 동시에 교사가 되는 것에 내재해 있는 어려움과 갈등은 유치원에 계속 근무하지 못한 미련이 남아있는 마음이 가장 컸음을 돌아본다. 이교사의 자신의 마음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성이기에 우

리가 유아교육자인 동시에 페미니스트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Goldstein, 2001). 조금 더 자신의 자리에 대한 땀땀함과 마음의 위로와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이 필요하겠다. 유아교사의 개인적인 요인 즉, 자아실현, 자기개발 등을 통해 복직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유아교사를 위한 복직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 유아교사가 안정적으로 유아교육기관에 복직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하지수, 2017).

바. 포기하고 선택한 나를 칭찬합니다

이 땅의 유아교사들은 돌봄과 해방 페미니즘 담론이 역설적으로 공존하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보육과 교육이라는 어려운 사회적 기대를 끌어안고 수용하는 넉넉함을 지닌 생명의 상징이고 힘든 상황에서도 더 나은 자아를 위해 꿈을 꾸는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교사(임부연, 최혜림, 2006)로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교사는 자신의 선택이었지만, 또 다른 나를 포기한 선택이라는 점을 늘 가슴속에 담아오고 언제나 유치원으로의 재진입을 꿈꾸며 문을 열어놓듯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자녀를 우선순위로 하는 선택에서 자신의 자아실현과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였다.

처음에는 아이를 놓고, 집에서 양육하다가 유치원에 제가 일을 했던 곳이 유치원이기 때문에 유치원에 가고 싶어서 아이가 첫돌 때쯤 다른 유치원에 면접보고 갈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너무 멀어, 돌도 안된 아이를 데리고 갈려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아 그쪽은 안되겠다 해가지고

(2016.10.1. 인터뷰)

놓아야 되는데 그 놓는게 잘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지 내가 좀 선택을 잘 못하니까 그게 켈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주위에 물어보죠. 난 엄마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우선으로 하니까 유치원을 가고 싶으나 가지는 못하고 옮겨보려고 해도 불안하고

(2016.11.19. 인터뷰)

자부심 그런 게 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그 선생님들은 그, 사회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 나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 어린이집에서 조금 일하는 데 대해서 별로, 그런 생각이 없는데, 주위에서 좀 낮게 보는 식으로 해서 내가 조금 '저는 가정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 걸 조금 밝히기가 조금, 부끄러운 그런 게 조금 있기도 하고. 뭐 그냥 사회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으려면 내가 뭐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정 어린이집에서 조금 약간, 돈을 적게 받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난 별로 그런 생각이 없을 텐데, 그런 사회적인 그런 거 때문에 약간 그런 그러니까 또 한 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학부모들처럼, 그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간호사랑, 조무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완전 확연하게 다르다 생각하는데, 간호사도 간호사와 조무사를 확연하게 구분하는데 안 그런 것처럼. 그런 인식들도 있더라고.

(2016.12.17. 인터뷰)

나는, 시간적인 거나, 뭐 일에 가중이라든지, 그런 게 유치원보다는 조금 낮으니까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이집에 일을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우리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케어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유치원을 가면 또 업무가 많아지고, 또 시간이 길어지

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케어 못 하는 그런 부분. 그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니까 내가 유치원을 쉽게 못 가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냥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는 내가 내 일 하고 애들 키우고, 괜찮은 것 같아. 사회적 인식이나 처우나 보수는 별로지만. 그건 포기하는 거지. 어느 정도

(2017.1.7. 인터뷰)

유치원 교육 현장을 고집하던 저에게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나에게 유치원 현장이 아니어도 내가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사회적 인식이나 나의 편견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 내가 원하던 유치원 현장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선택한 저 자신한테도 칭찬을 해 주는 기회가 되었네요. 제 성격상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격인지라 아마 유치원 현장으로 갔으면 아이들보다 일이 우선이 되어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들고 상처받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해 보았네요. 유치원, 어린이집 두 곳을 다 근무하면서 유치원보다 많이 부족하고 체계가 덜 잡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적절하고 올바른 환경 마련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제도를 마련해서 그 곳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행복하며 일하는 교사들도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해 졌네요... 저 역시 아이를 낳고 키운 엄마로써 아이들이 행복해야 부모도 행복하니까요...

(2017.1.25. 반성적 저널-인터뷰 소감문)

이교사의 교직생애 경험은 자신의 체화된 지식을 나뉘줄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한이 확대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학습자에게는 삶과 결부된 지식들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몸-마음, 이론-지식이

합일된 가치를 전하는 과정이 됨은 물론이다(정경수 외, 2016). 이교사가 돌봄과 더불어 더욱 ‘교육적 가치’에 대해 갈망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그리 길게 이어나가지 못하고, 지금 일어난 일들과 고민하는 일들과 공감하며 위로해 주어야 할 일들의 이야기가 더 길어졌다. 자녀의 유치원 선생님 이야기, 시택의 곤란함 문제 이야기, 유치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며 일어난 교사들 간의 문제 이야기 등등 우리의 이야기는 밤을 새워도 모자랄듯하나 집에서 기다리는 남편과 자녀들 걱정과 엄마를 기다리며 걸려오는 전화로 아쉬운 첫 인터뷰를 마무리 하였다.

우리는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고, 제도적으로도 적절한 받침이 되어 주지 않더라도 자랑스러운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다.

(2016.10.1. 연구자 일지 1차.)

사립유치원 교사, 국공립이든 법원이든 사립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어린이집 교사, 그곳에서의 자녀를 가진 엄마교사의 삶은, 사회인식적인 면에서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복지적인 혜택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보수도 그리 넉넉하지 않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자부심,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어린 시절 아이들에게 꿈과 사랑을 심어주는 퍼내고 퍼내어 내 자녀를 바라보고 키우듯이 나를 닮게 만들어서라도 소중한 어린 싹들을 아주 아주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키워내고 자라게 물을 주는 그런 자리에서 뿌듯함을 가지고 감사하며 엄마 교사로서 살아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2016.12.17. 연구자 일지 5차.)

이교사는 교사로서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교사로 있지만 ‘교육하는 돌봄’에 대한 자부심 또한 있는 듯하다. Fried는 열정적인 교사들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교사들을 구별 짓는 것은 “아이디어와 가치에 관심을 갖는 품성, 사람들 안에 있는 성장을 위한 잠재력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것, 어떤 것을 잘하고 최선을 위해 노력하는 깊이와 열정(Fried, 1995, p.17)”이라고 주장한다. 열정적인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하는 자신의 삶으로 인해 의욕이 넘치며, 그들과의 일로 성취감을 느낀다고 덧붙인다. 열정적인 교사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가르친다(임부연 외, 2006). 이교사 역시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V. 두 엄마 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

이 장에서는 두 엄마 교사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영유아교사가 되고,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며 가지는 갈등과 어려움을 연구자의 시선으로 그 의미를 읽어보고자 한다.

엄마이자 유아교사가 되는 것에 대한 도전은 엄청난 느낌이다 (Goldstein, 2001). 이 엄청난 도전을 한 두 교사의 경험 속에서 가지는 어려움들의 간주간적 주제를 이끌어 내고, 그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어려움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나는 3D 직업 영유아교사다

1980년대 이후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근로자들이 일하기를 꺼리는 업종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더러움을 의미하는 dirty, 힘들음을 의미하는 difficult, 위험함을 의미하는 dangerous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 ‘3D’ (시사상식 사전)는 유아교사들 사이에서 자칭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아이들의 변, 오줌, 구토한 것부터 자질구레한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부터 형광등 갈기, 못질하기, 칼질, 톱질, 똑딱똑딱 교구 만들기, 냉장고 박스나 큰 박스를 이용해서 활동자료 만들기, 체험학습을 갔을 때는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과실을 따거나 곡물을 수확하는 일부터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시기인 아이들을 보살피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교사는 눈이 앞, 뒤, 옆, 위, 아래에 달려 있어야해’ 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모든 상황과 환경과 활

동들을 살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며 관계가 아주 좋던 학부 모님과도 아이가 조금 다쳤다는 이유로 평가 절하되거나 극도로 불신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위험함을 감수하기도 하고, ‘엄마’와 같은 슈퍼맨 같은 면도 가지고 있어야 안전을 책임지고 아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생활할 수 있기도 하다. 그 뿐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요구와 학부모님들의 트집과 오해에 무조건 ‘죄송해야’ 하는 지극히 ‘을’의 입장이기도 하다. 어쩌면 ‘을’ 보다는 ‘병’, ‘정’ 일지도 모르겠다.

홍교사와 이교사와 함께 근무하던 시절 연구자는 두 자녀를 키우고, 결혼 전 근무하던 S유치원의 요청으로 두 자녀와 함께 복직을 했던 때였다. 자신의 요구를 관철 시켜야 하고, 교사도 유치원도 자녀도 자신의 요구와 의도대로 움직여 주어야 하는 학부모님을 만났다.

만 5세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에게 몇 차례의 지도 후 아이에게 “어머님께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그 아이는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안된다고 고압을 지르며 부들부들 무서움과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연구자는 어머님께는 따로 이야기 하지 않고 아이를 믿고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 다음날 격양된 목소리와 화가 잔뜩 나 있는 전화기를 뚫고 나올듯한 목소리로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엄마에게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했어요?”라고 전화가 왔다. 연구자는 아이와 있었던 일과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며 ‘여러 번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아서 어머님께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러자 분노 하는 목소리로 “아니! 우리 아이가 ‘엄마’라는 말만 해도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 하는데 어떻게 엄마에게 이야기 해야겠다고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라고 하는게 아닌가?

황당무계한 상황이었지만, 부모의 입장이었던 연구자는 그 어머니께 잘 이야기 하고 도닥여도 보았으나 결국은 유치원을 나가겠다고 졸업이 얼마 남지 않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바로 유치원을 퇴원 하였다.

그리고는 근처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 아이를 입학시키고 만나는 사람마다 연구자의 이름을 이야기 하며 “어떻게 교사가 그럴 수가 있냐?” 고 했다는 것이다. 단편적인 사례지만, 지금도 교사들은 감정의 노예처럼 그저 미안하고 그저 죄송하고,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는 것들 속에서 보호 받지 못하고, 방탄복 없이 총알을 받는 것 같은 상황들을 수시 때때로 경험하고 살아간다.

아동, 유아 폭력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슈로 여러 매체로 가르치고 경각심을 가지고 교사들에게 시기마다 안전교육과 연수로 강조 하고 있는 반면, 교사가 당하는 학부모로부터의 언어폭력과 겁주기와 권력 남용하기 등을 비롯해 과잉행동을 하는 아이들의 폭력으로 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유아교사가 된다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핑크빛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고운 마음과 달리 처절하게 현실과 싸우고 극복해야하는 3D중에 TOP 3D일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홍교사의 인터뷰 중에도 등장한다.

차를 타고 연수를 받으러 가기도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갔으면 하는 원장선생님의 생각이 나는 그게 왜 왜 좀 몰라주지 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2016.10.1. 홍교사 인터뷰)

이미 나이가 있고 하니까 변하지 않을 꺼다 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의 성격은 변하지 않을 거고, 선생님의 그 교육

관은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예 지레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
고. 올해 그리고 작년에도. 그래서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오해하고, 그렇게 넘기는 거지. …(중략)… 정말 억울하지.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교육 하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했지. 정을 주지는 못했어도 내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거에 지쳐
서 같은 또래고 다 여섯 살, 일곱 살이고, 내가 보는 아이들도 일곱 살
이고 하니까 그거 때문에 육아에 지쳐서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정을
주지는 못 해도, 엄마로서 정말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되고, 다치면 또
엄마들도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할려고, 또 서로 간에
피해 안 되게 할려고. 그걸 온 힘을 다해서 봤는데. 다른 그 어떤 선생
님들보다도. 그런데 또 엄마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참 단점이지
않을까. 그런 게 단점이지 않을까. 말도 못 하고, 변명도 못 하고. …
(중략)… 아 이 엄마는 지금 현재 무슨 왜 날이 서 있는 엄마라든가,
뽀족뽀족한듯 한 그런 성격이 좀 까칠한 것 같은 그런 엄마들은, 가정
에 무슨 문제가 있나?

(2016.11.26. 홍교사 인터뷰)

한 인격체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배려 받지 못하는 모습들조차 교사 스
스로가 받고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된다. 초임 때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은 곳곳에 있고 다분히 배려 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직업임이 드러난다. 학부모와 관련기관 및 사회적 인식이 전환 될 때, 엄
마됨을 경험한 유아교사들은 경력 단절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
문성을 다지는 시간을 경험할 것이다(정경수 외, 2016).

그때 당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차를 두 시간 세 시간을 타고 아침
이든 저녁이든 등하원 차량을 우리 때에는 혼자서 2시간이든 3시간이

든 탔는데 큰 버스에 애들 60명씩 이렇게 태웠는데 그게 힘들지 않았고 지금 기억에, 물론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겠지. 안 힘든 사람을 없었을 거고

(2016.10.1. 홍교사 인터뷰)

일 자체? (웃음) 그냥 그 때는 막연하게,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고 그 또 연구수업이라든지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이 힘든 거? 내가 해낼 수 있을 까 그런 나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가씨 때는.

(2016.11.26. 이교사 인터뷰)

그래. 그런 거 많이 있어가지고, 엄마들이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약간 예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하시지.

(2016.12.19. 이교사 인터뷰)

그런데 너무,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도 아닌데 괜히 오버를 해. 그럼 와 가지고는 선생님한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다쳤잖아? 그런데 자기가 아침에 못 봤어. 그런데 우리는 와서 확인을 했잖아? 그래서 집에 갈 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딱 잡아떼는 거야. 어, 집에선 안 이랬는데,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여름에는 특히 모기 물려 오잖아, 그러면 오후 되면 붓잖아. (어린이집에서 모기가 물린게 아닌데) 그러면 아침에 확인해가지고 조금 이상이 보이면 전화를 바로 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어. 그런데 또 유독 할머니들은, 그걸 더 안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아닌데, 집에선 안 그랬는데 어린이집에서 물렸다'고. 그렇게 하고. 하여튼 엄마들이, 초등학교 선생님한테는 말 못하고, 유치원 선생님한테는 조금 말 못하고,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는 막말하는. 그게. 그러니까 엄마들도, 요즘 엄

마들은 하도 주워 듣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에는 선생님들이 자격이 이렇고 뭐 그런 걸 조금 알겠지? 그렇게 하니까 약간 낮게, 그냥 우리 애를 봐 주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래서 약간 친하게 해 주면, 편하게 해 주잖아, 그런 것들이 더 격 없이, 자기가 자기 감정을 너무 쉽게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전에 우리 원장선생님이 전에 그 형제데, 잘해줬거든. 그런데 여기 밑에(허벅지 뒷 쪽) 빨갛게 딱 선이 그어졌어. 어. 그런데 완전 그 다음 날에 와가지고 그 바지를 원장선생님한테 (세차게 던지는 흉내를 내며) 던지면서 있다이가, 어제 이 바지 입고 갔다면서(삿대질을 하며) 이 만져 보라면서, 이렇게 두꺼운 바지인데, 이거 기저귀 갈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면서. 보육 선생님, 대체 선생님 오셨거든, 들어오자마자 탁 손톱 보고 있다이가.

요즘에 갈수록 그런 엄마들이 심해져가지고. 유치원에 가서는 그렇게 하겠나?

(2016.12.19. 이교사 인터뷰)

우리나라 유아교사는 과중한 근무시간과 낮은 급여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초래되고 정책적 지원의 부족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지나친 요구 등으로 인해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김은숙, 2008)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소진 상태에 이르게 되는(권혜진, 2008) 아이러니한 교직 생애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직업생애 주기의 조로 구조-유아교사는 취업 직후 보육업무 및 환경에 대한 ‘현실 충격’ (이명순, 2000)으로 시작해서, 4-5년 경력을 쌓은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중간관리자인 주임을 달고, 5년 이상 경력이 쌓이면서는 호봉이 높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간다(김희연, 김은숙, 2013).

‘교사’ 라는 이름으로 부푼 꿈과 사랑을 가지고 시작한 유아교사라는

이름을 뒷받침 해주고 보호해주는 법안 없이 홀로 허허벌판 잡초 밭에 내 던져진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임신과 출산의 강요된 침묵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결혼을 준비하며 겪는 어려움이 다른 직장 여성에 비해 큰 것은 유아기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일 것이다.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입사하기 전 면접을 볼 때 대부분 이성친구나 결혼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자영, 이대균, 2013).

결혼날짜부터 자유롭게 잡을 수 없고, 시간에 쫓기거나 동료들에게 짐이 되는 결혼 준비와 신혼여행으로 시작하여 결혼한 후에는 한 해를 마칠 때까지 임신하면 안된다는 법적 약속같은 다짐을 받으며 기혼교사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그 후에도 축하받지 못하고 숨겨야 하거나 유산을 걱정하며 몸과 마음이 무리하는 생활을 해야 하기도 한다. 결국은 스스로 퇴직의 길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과 꿈은 언제일지 모를 시기가 올 때까지 접어 두는 일이 된다.

연구자가 속한 법인 어린이집에도 올해의 사정회를 하며 둘째 계획이 있을만한 교사에게 원장님께서 올해까지는 자녀계획을 가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한해를 시작하였다.

원장선생님과 마음이 조금 원장선생님이 너무 섭섭한 점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 섭섭한 점은 지금은 사실기억이 잘 나지 않아 그게 이제 아마 그때 당시의 내 마음의 상태가 그만큼 힘들어서 그랬던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때 당시에는 힘들긴 힘들었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 해 지나고 그 다음해 까지는 꼭 있다가 나갈거다 라고
원장선생님께 내가 이야기를 하고 끝마무리는 해줘야 되겠다 하고 결
혼하고 일년 반을 더 있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켈 마지막에 제일 힘들
었던게 임신하고, 임신하면서 입덧을 많이 심하게 했는데 그거를 좀 이
해를 해 주셨으면, 옆에 선생님들은 오히려 처녀인 선생님들은 이해를
해 줬는데 원장선생님이 그거를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는지 부당하다
는 생각을 .. 내가 원장선생님이 부당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점이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임신하고 입덧하면은
사실 너무 힘들어서 힘도 없고 자꾸만 드러누워 버리고만 싶었는데 일
이 끝나고 잠시 청소할 때에 잠깐만이라도 누워있고 싶었는데 그 시간
조차 주어지지 않으니깐 내가 더 힘들지 않았나

(2016.10.1. 홍교사 인터뷰)

가장 힘든 것은 내 마음이었지. 힘들다는 마음? 지친 것 같다는 마
음?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 사람이 유치원에서 일을 한다는 것
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지만, 특히 원장 선생님이 전혀
배려는커녕 아이를 가지는 것이 유치원에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내가
내 일을 제대로 못할 것처럼 이야기 하셨었지. 나는 내 나름 열심히 하
고 다른 사람과 똑 같이 하려고 하는데 원장님은 눈치 주듯이 계속 그
러셨고, 지금은 정확하게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이가 유산 될 만큼
참 힘들었었네... 몸도 마음도... 특히 마음이 지쳐서 그렇게 유치원을
나와 가지고

(2016.11.19. 홍교사 인터뷰)

내 아이를 임신해 본 경험이 있는 학부모들과 원장, 나도 언젠가 결혼하
고 아이를 가질 거라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진 직장 동료들이 뱃속에 자
라고 있는 생명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신한 교사들이 겪는 어

려움을 이해한다면 임신한 교사들이 현직에서 떳떳이 일하고 배려 받는 일이 가능해 질 것이다(구자영 외, 2013).

내가 아이를 너무 가지고 싶어 했었고 유치원에서 아이가 잘못 뒀을 때 많이 힘들어 했었으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서 유치원을 그만 뒀었으니까 유치원에서 임신하고 일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그런데 연년생을 키우는 모든 부모들이 그렇지 않겠나 둘이 같이 키우는 것처럼 젖 먹이고, 기저귀 떼고 안고 업고 그러니까

(2016.11.26. 홍교사 인터뷰)

기혼 영유아교사의 사정회에서 이야기 하는 첫 번째 조건과 질문은 ‘임신계획이 있느냐?’ 는 것일 만큼(구자영 외, 2013) 기관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계획이 있는 시기 즈음의 엄마교사들의 첫째 조건은 한 해 동안 끊이지 않고 담임으로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냐? 하는 것이다. 그 기준은 마치 임신을 하거나 자녀계획을 가지면 ‘우리반’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것 이라는 것을 정답처럼 제시해 두고 하는 질문인 것 같다.

유치원 측에 종일반으로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종일반 선생님 일을 하면서 서류적인 일을 배우고 싶다 담임보다는.. 그렇게 했더니 유치원측에서 그럼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받아줬으면 그곳에서 일을 계속 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했을 텐데, 아 그건 안된다고 하셔서가지고 ...(중략)... 그때는 원감 자격을 따고 나가고 싶었는데 찼렸죠, 뭐. S유치원에서 생활했던 10년을 마무리 하고

(2016.10.1. 이교사 인터뷰)

아이가 첫돌 때쯤 다른 유치원에 면접보고 갈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너무 멀어, 돌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갈려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아 그쪽은 안되겠다 해가지고 집 바로 옆에 어린이집에 면접을 보고 갔었는데 일을 하다가 제가 둘째가 임신이 됐는데, 어 임신이 조금 순조롭게 잘 안되면서 유산하면서 거기는 한 한달 반 정도 있다가 그만두고 집에서 첫아이랑 같이 생활하다가

(2016.11.19. 이교사 인터뷰)

유아교사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임신한 거 티내지 말라’는 말 속에 자신을 가두어 놓듯 교직 생애를 살아간다. 그래서 당연히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고, 때문에 유산을 경험한 이도, 경험하지 않은 이도 일과 아이 사이에서 아이를 선택하며 오랫동안 해온 직장을 떠날 결심을 하고 있다 (구자영 외, 2013).

결혼한 교사, 엄마인 교사로 유치원에서 또는 어린이집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더 중요시하는 것을 위해 포기하기 원하지 않지만, 무엇인가는 포기해야하는 삶이 된다. 모든 일들이 그러하겠지만, 그리고 사람들의 삶들이 ‘선택’이라는 길 위에 있겠지만, 특히 유치원이라는 곳에서 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해야하는 경우가 많다.…(중략)… 김해로 이사하며 유치원교사로 다시 시작하였다. 그러나 역시,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 우리 아이들은 방치되며 학원과 공부방 등을 돌고, 늦게 퇴근해서 오는 엄마를 기다리며 가족들도 함께 지쳐갔다. 유치원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있을 때에는 몇 달 동안 정시퇴근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열두시가 넘어서 퇴근하며 체도가 원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수정하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고치고 꾸미고, 교사들도 날카로워 여자들끼리만 있는 집단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 되어간다. 그러고 나면 지칠대로 지친 몸과 마음은, 회복을 위해 쉼과 여유를 갈구하지만, 교사로, 엄마로, 아

내로, 또 누군가의 며느리로 존재하는 ‘한 여자’는 유치원교사의 길을 원하지만, 내 아이들의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더 하고 싶어서 많은 호봉을 부담스러워하여 급여가 줄고, 사회적 인지도도 높지 않은 어린이집교사를 선택하여 근무를 한다. 예전에 동료 교사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우리는 참 아이러니 하죠- 남의 애들 잘 키워주겠다고 안아주고 물고 빨고 하면서 뭐라도 하나 더 해주려고 사비까지 털어서 아이들과 활동할 것 준비하면서 정작 소중한 내 자식에게는 다- 소진 되어서 집에 가면 쓰러지고, 집에서는 또 집안일로 바쁘다는 이유로 한번 안아주지도 못하고, 엄한 엄마가 되고....자기 자식에게 더 쏟아야 할 텐데, 그럴 에너지가 집까지 남아 있지를 않네 이거 뭐하는 짓이지?” 결혼한 교사가 또, 자녀가 있는 엄마 교사가 특히,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그곳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원감이 되고, 원장이 되는 일은, 내 자녀와 내 가족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가득하여 참 씁쓸하다.

(2016.11.19. 연구자 일지 2.)

일반적으로는, 모두에게 축하받고 축복받고 기뻐하며 임신하고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과연 엄마교사에게 축복이고 선물이기만 한 것일까?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문화를 위해서 임신부들은 의료적 지원보다도 사퇴, 심리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되새기며 주변 교사들의 심리적 도움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구자영 외, 2013).

3. 엄마와 교사의 경계

4년 전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있는 규모가 꽤 큰 E유치원. 어린이

집에서 근무하였다. 6월에는 유치원 평가가 있었고, 12월에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있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랐다고 생각했기에 선택했던 교육관이 마음에 드는 곳이었다. 그러나 엄마로도 교사로도 또 다른 이름들도 살아가는 일상들이 버거운 하루하루였고, 6월 유치원 평가를 준비하면서도 몇 번의 몸살을 하고, 12월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하면서는 결국 독감에 대상포진까지 왔다. 응급실을 가서 확진을 받은 날만 결근을 하고,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기에 마스크를 끼고 출근하여 첫 차량이 나갈 때 까지 담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다가 다시 병원으로 퇴근하여 링거를 맞고 그런 일상을 반복할 때 원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하셨다.

“평가인증 끝나고 나면 입원시켜줄게” 라고..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하게도 버텼다 싶은 일상이 대부분의 교사들은 ‘아파도 우리반은 책임져야하는 무죄 무적 교사’ 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플대로 다 아프며 교사로서의 몫을 다한 후 평가인증이 끝나고 나서도 입원할 여유는 주어지지 않았다. 자녀와의 시간과 나를 위해 이직을 선택하고 그곳을 나온 후로도 원장님께서 네 번 정도의 모든 요구를 맞추어 주겠다는 권유의 연락이 왔다. 더 많고 나은 급여조건과 사회적 인지도를 버리고 거절에 또 거절을 거듭할 수 밖에 없었다. 원감으로 업무를 배우고 싶어 갔던 그곳에서의 꿈은 무너졌고, 유치원 경력을 쌓는 일도 스스로 한 ‘포기’가 되었다.

결혼하고 그 다음해까지 한 게 거기서 11년을 일을 했는데 그다음에도 아이를 가지면서도 일을 또 하면 좋은데 나도 이제 11년 동안 일을 해놓으니까 유치원에서는 사실 힘들기도 하고, 모든 유치원들이 다 힘들 것이고, 특히 그 당시에는 결혼한 교사가 없었잖아 당연히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유치원을 그만두는 것이 의례인 것처럼 했었잖아. 어떤 일이든지 힘들 것이니까 ...(중략)... 아이도 들어서고 그런데 또

아이가 잘못되면서 아이가 유산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해에 까지 유치원을 마무리를 하고 나왔지 그렇게 유치원을 나와 가지고 이제 일단은 몸을 조금 아이를 다시 가져야 하니까 결혼한지 일년반이 지났으니까 나이도 적은 편도 아니고 서른이 훨씬 넘어서 아이를 가져야 되니까 유치원 일을 그만두고 좀 편안하게 생활을 했지. ㅎㅎㅎ 그래하면서 애 가지고 큰애를 놓고, 큰애 놓고 나서 둘째가 바로 들어서면서 둘째를 그다음에 바로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랑의 일도 어려워지고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다시 취업을 해봐야되겠다 해서 그 찰나에 아는 친구가 어린이집에 있는데 아 아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이 하는 어린이집이었어요.

어린이집에 0세반 선생님 자리가 비는데 그때가 11월인가 10월쯤이라서 친구가 “니 잠시와서 일 할래?” 해서 나도 내 아이가 그때 한 12개월이 지나 돌이 지났을 때고 작은애가 막 6개월인가 7개월이라서 젖을 먹일 때라서 내 아이들을 놔두고는 갈 수는 없고 내 아이를 보면서는 0세반 아이들을 3명은 봐줄 수는 있다 해서 그 어린이집을 잠시 들어가서 3개월을 2개월인가 해주면서 ‘아! 어린이집에서 다만 몇 만원을 받더라도 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닌다면 이것도 가능하겠다’ 생각하고 그쪽에서 일을 할려고 딱! 마음을 먹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자녀를 데리고 출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고. 다른 엄마들 눈에도 신경 쓰이고 뭐... 그렇다고...

(2016.11.19. 홍교사 인터뷰)

그해 4월에 작은 애가 둘째가 한돌 딱 될 때 돌잔치 할 무렵에 젖을 떼고 바로 취업을 한데가 B유치원이었는데 거기 취업을 할 때에는 교사로 가면은 내가 또 일에 얽매야야 되니까 내가 갓난쟁이 애들을 키우면서 그래서 가장 좋은게 집 근처고 그래서 사하구 관내에서 구했

던 곳이 B유치원이었고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는 마침 다행인 게 6시
면 칼퇴근을 할 수 있고 아침에는 8시 반까지 출근을 하는데 …(중
략)… 자기들끼리 재워놓고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사실 많았지.
…(중략)…7시쯤에 출근을 하면서 어린이집에 애들 가방을 대문밖에
선생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이들 어린이집 대문밖에 던져 놓고 그리
고 내가 출근을 하면은 신랑이 애들을 챙겨가지고 옷 입혀서 어린이집
보내놓고 통학돌고 애들 깨워가지고 옷 입혀서 보내놓고…(중략)…
거기의 교육관과 나의 교육관이 맞지 않고 그 원장님의 교육관과 나의
교육관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두말 안하고 그해만 딱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지금 여기 W 유치원이었는데

(2016.11.19. 홍교사 인터뷰)

아이들이 다니던 어린이집은 계속 다니고 거기 우리 애들이 그나마
적응했으니까 사실 저그가 어찌겠노 엄마가 일하는데 아침에는 던져지
다 시피 어린이집에 가고 저녁에는 늦게까지 있기도 하고

(2016.11.19. 홍교사 인터뷰)

홍교사가 재진입을 결심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 는 있
었을까? 나의 발전, 나의 목표, 나의 직업으로서의 자존감등. 어찌면 어린
이집에 던져지다시피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가기를 반복해야 했던 아이들과
남편이 육아를 어떻게 도와 줄 수 있는지와 엄마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한
지 등을 먼저 고려한 선택들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교
육관까지 합한 유아교육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음이 감사함으로 와 닿고,
크고 작은 어려움까지 덮어 줄 수 있는 힘이라고 이야기 한다.

젤 힘든 것은 내 마음의 문제 항상 유치원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보면 아! 나도 유치원에 가서 일하고 싶은데 심리적인 것 그래서 항상 주위에 “선생님 유치원 좋아요? 어린이집이 좋아요? 선생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는 일에 대한 불안한 것 또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유치원에 가서 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일 힘든 것 보다는 그런 내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이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신랑이 워낙 바깥으로 나가다보니까 모든 양육이 저한테 거의 90프로 그렇다보니까 아이가 아플 때라든지 또 아이 둘을 챙기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있고,

놓아야 되는데 그 놓는 게 잘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지 내가 좀 선택을 잘 못하니까 그게 젤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주위에 물어보죠. 난 엄마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우선으로 하니까 유치원을 가고 싶으나 가지는 못하고 옮겨보려고 해도 불안하고

(2016.11.19. 이교사 인터뷰)

내가 주 양육자에 남편은 한 달에 절반이상? 아니 일주일에 반은 집에 있을까말까 하고 지금도 여전히 맨날 출장 가니까 내 혼자서 다 키웠죠. 그래서 내가 더 유치원을 갈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자녀가 있어서의 장점은, 제일 큰 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내가 아이가 없었을 때는 그냥 내 입장에서 아이를 이해하고 또 부모님을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 상황을 보고 부모님 마음을 이해해가지고 말을 하는 것 보다는 그 상황을 보고, 그냥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아이를 낳아 보고 아이를 키워 보고 하면서 어떤 (일들을 볼 때나 내가)어린이집의 일을 할 때, 부모님이랑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아 엄마 마음이 조금 이렇게 했겠다 그 마음이 먼저 이해가 되니까 나도 조금 내가 애들을 보내면

서 나도 그런 걸 똑같이 느끼고 공감을 했으니까 먼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옛날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등 교과서적인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발달 사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왜 안 되지? 이상하다 등 아이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그런 게 많았다면 아이를 키우고 난 다음에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조금 너그러워지는 거? 그런 거도 많이 생겨가지고 좀 더 아이를 바라보고 부모님을 이해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아이를 낳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진 거 같아요

그리고 교사로서 아이를 키우며 뭘 제대로 해 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거기 때문에 나는 일찌감치 유치원을 그만 두고 다시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아프거나 급하게 응급실을 가게 되어야 할 경우가 많았는데 내가 쉬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아이 못 키웠겠지 시어머니께 내 월급의 절반이상을 드리고 맡겨야했거나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더 싫고 우리 어머님 생색내시니까. ‘너거 애들 키우면서 내가 일을 못한다’ 시며.

(2016.11.26. 이교사 인터뷰)

결혼 전과 후의 달라진 가장 큰 것이 유치원 현장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는 것 이였습니다. 마음은 유치원 현장으로 가고 싶었으나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주위의 도움 없이 온전히 혼자서 헤쳐 나가기엔 업무량이 너무 많아 힘들어서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으로 바꾼 가장 큰 이유였지만...

(2017. 1. 25. 이교사 인터뷰 소감)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고 조언했던 내 말에 원감 연수 신청한 것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교사는 원감 연수를 포기하고 아이를 선택하여 휴직하였고, 유치원 원감이 될 교사가 아니라,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이교사는 휴직한 그 후부터 아이를 키우면서도 현재 어린 자녀를 위해 시간이 편리한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도 매년 10월에서 11월만 되면 묻는다. 아이를 맡기고 유치원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고민하며 나는 아이를 어떻게 키웠냐고? 이제 아이를 맡기고 일하러 가도 되겠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둘다 근무해 보며 장단점은 무엇이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하는 것이 좋겠냐고? 등등 유치원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해년마다 고민으로 풀었다 다시 접었다를 반복하고 있다.

(2016.11.19. 연구자 일지 2.)

이교사는 여전히 영유아를 교육함과 업무수행의 능력이 있고, 자기 개발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치원에서의 근무와 원감자격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유치원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있다. 10년 지기 선생님들과의 모임에서 늘 현재 유치원 의 정보를 얻고, 다양한 기관으로 이직한 교사들 사이에서 기관들의 장단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고민하고 꿈꾸고 희망하고 있다. 이교사의 지금 일상에는 이교사 자신을 위한 선택과 모습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잦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남편을 대신하여 육아의 모든 부분을 감당해야하고, 이교사 스스로 “엄마 껌 딱지”라고 이야기 하는 두 자녀가 엄마가 유치원으로 이직 할까봐 가지는 두려움을 헤아리며 호봉도 사회적 인정도 받지 못하는, 심지어는 시댁과 남편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정어린이집 교사 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다.

언제일지 모를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기대하며 여전히 사립유치원의 문틈을 엿보고 있다.

4. 정책담론에서의 소외

엄마선생님들은 누가 만들어 냈는지 모를 사회적 약자에 위치해 있다. 유아교사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장시간의 근무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일과 가정 사이의 역할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고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과중한 역할 부담은 과도한 정서적 긴장으로 이어져(Soderlund & Malterud, 2005) 직무 스트레스에 그치지 않고, 교사의 장기간 휴직 및 퇴직으로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구자영 외, 2013). 사회적 인식과 정책과 제한된 복지가 만들어 낸 타자적 정체성은 아닐까?

‘내 소리’를 내어 이야기 하던 것들을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설레임과 기대감! 이것이 첫 인터뷰의 시작이며 출발이다. 물론 기대와 달리 시간 한번 맞추고 잡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우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일들과 행사들, 연수, 평가인증 등등 직장의 걸림돌뿐만 아니라 집안 행사, 집안일, 자녀들의 사정, 남편과 함께 시간 맞추어 하는 여행까지, 우리의 만남은 늘~ 그리워하고 기다리면서도 한번 시간 맞추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만나서 식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잊은 채 서로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느라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눈다. 토스트에 커피한잔으로 막- 행사를 마치고 달려온 홍교사도, 아이들과 남편과 주말을 맞아 함께 낮 시간을 보내고 온 이교사도 그리고, 대학원을 가기위해 조금 일찍 나간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보다 당

직을 조금 더 하고 평가인증으로 헐떡였던 연구자인 나도 한숨을 돌린다. 아니 한숨을 돌릴 여유도 없이 있었던 일과 화가났던 일과 고민이었던 일들이 쏟아져 나온다. 직장에서, 집에서, 시댁일로 또 아이들일로...

(2016. 10. 1. 연구자 일지 1.)

그렇죠. 내가 주 양육자에 남편은 한 달에 절반이상? 아니 일주일에 반은 집에 있을까말까 하고 지금도 여전히 맨날 출장 가니까 내 혼자서 다 키웠죠. 그래서 내가 더 유치원을 갈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할 수는 없지요.

(2016.11.26. 이교사 인터뷰)

이교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 할 수 없는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며 영유아를 보육하고 교육하는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주변의 인식 특히 시댁과 남편이 낮추어 보는 인식을 듣고 느낄 때는 현실에 순응하던 삶에 대한 회의감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거 별꺼면 차라리 애나 키워라’는 식의 말에 분노하며 한숨짓는다. 그럼에도 ‘엄마’의 자리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는 당당한 엄마 선생님이다.

보수의 기본 책정은 오래전 우리가 첫 근무를 하던 2000년대 초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지만, 그 호봉대로 다 받으며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자녀의 양육을 포기해야하는 일이 된다. 이교사와 홍교사는 모두 자신의 경제적 보상에 대해 감사하며 이것만으로도 만족한다며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 뒤편에 이교사는 유치원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녀를 조금 더 신경쓰며 자녀양육을 우선으로 두었기에 시급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홍교사는 유치원에서 호봉을 모두 인정해 주는 급여에 아주 감사하며 두 자녀를 데리고 기본은 여덟시, 자주는 열시쯤 퇴

근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있다. 그리고 나 역시, 2008년 이전의 유치원 경력에 대해서는 호봉을 깎고 그 이후부터 어린이집 호봉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호봉도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러주고 붙잡아 주는 유치원이 있음에 감사함에도 손을 뿌리쳐야했던 것은, 그 ‘유치원의 생리’ 라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모두 알고 있는 일상들이 내 자녀를 돌보고 키우기에는 무리이며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6.12.3. 연구자 일지 4.)

우리 딸들은 어려움은 있겠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올 때도, 지금처럼 유치원을 같이 다닐때도 엄마가 같이 있어줄 수 있다는 것 말고는 내가 아무것도 해 줄 수 있는게 없으니까 늦게 마치고 늦게까지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나랑 같이 있으니까 감사 하는 거지..

불쌍할 때도 있어. 가끔(쓴웃음) 유치원을 마치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마치고 유치원에 보내어졌는데 내가 유치원에서 본의 아니게 10시 11시에 퇴근할 때가 있었지 그럴 때는 신랑에게도 아이들을 보내기가 어려워서 내가 데리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아이들은 유치원에 와서 내 교실에 와서 뒹굴 거리다가 자다가 저녁도 못 먹고 갈때가 많지... 열시 열한시 까지... 유치원에 내가 간식을 싸오거나 밥을 싸오거나 해서 먹일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자니 내 몸도 너무 힘들고 해서 때로는 싸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안 싸울 때도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들이 참 힘들었지. 지금도 애들이 크기는 했지만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도 나 같은 부모만나 저그들의 몫이 아니겠나... (씩씩하게 웃는다)

남자들은 자기들이 직장을 가는 데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걱정 자체를 아예 안하는데 여자는 이 아이를 내가 직업을 고르면서 선택해서 직장으로 가면서 이 아이들을 몇시에 오게 해

서 몇시에 내가 데리고 있는가, 내가 다니는 직장으로 오게 할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생각하고 계산해야 하잖아. 엄마들은..

(2016.11.19. 홍교사 인터뷰)

‘맞벌이’는 존재하고 ‘맞살림’은 아직인 현실 속에서 엄마교사들은 자신의 일과는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자녀의 동선과 남편과 가족의 일과에 맞추어져 있음이 보여진다. 그럼에도 자녀들의 요구와 자녀들의 입장을 고려한 선택과 결정과 일상을 살아간다. 자녀들 또한 엄마의 선택에 따라 어리지만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듯 살아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첫 애는 내가 데리고 키우다가 그냥 바로 유치원을 갔고, 둘째는 같이 어린이집에서 있었는데 솔직히 나는 아무런, 나라든지, 원장 선생님이라든지 같이 일하는 동료 교사들은 나와 우리 아이가 같은 공간에 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그냥 내 스스로, 부모들은 조금 '어? 저 선생님이랑 애랑 같이 다니네?', '어? 저 선생님이 선생님이니까 우리 아이에게 손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까 봐 괜히 출근할 때 데리고 가면서도 부모랑 부딪히면 내가 피하고, 웬지 우리 아이랑 같이 간다는 걸 조금 별로 오해 사거나, 불편함과 신경 쓰이게 안 하고 싶어서 피하거나 같이 가다가 피하고, 어린이집에 행사가 있어도 우리 아이는 조금 뒷전에 놔두고, 그 다음 또 엄마들이 모르게 좀 하고. 우리는 아무런 그제 없는데 괜히 엄마들은 좀 그럴까봐, 그런 거에 있어서 당당하게 밝혀도 되는 부분인데 내 스스로 조금 감추는 그런 게 힘들었고. 그 다음에는 힘든 거는 내가 우리 좀 행사가 있거나, 일찍 가야 되는 경우에는 또 0빈이는(이교사의 첫째아들) 이제 학교를 간 다음이니까, 내가 좀, 견학할 때는 한 여덟시 반까지 갈 때도 있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서 잠시 중단 후,) 그런데 어떤 날은 아직 학교 갈 시간이 아닌데 미리, 내가 좀 먼저 보내야 되니까 좀 불안

한 거? 먼저 애를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오직 앉았는데 애가 먼저, 학교를 가 있어야 되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 미안하고 걱정되고 그런 게 있고, 또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아이한테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는 만약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면 그 아이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아픈 거라든지 그런 걸 다 케어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못 해 주니까 힘든 것도 있고.

(2016.11.26. 이교사 인터뷰)

그, 애들을, 우리 유치원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애들을 유치원에 같이 데리고 다니니까 참 좋겠네요.' 이러는데 오히려 피해 보는 건 우리 아이들인데, 내가 우리 아이들을 뭐 '엄마라고 부르지 마.' 라든가 이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 다른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서 내 아이들을 절대 안아 줄려고도 잘 안 했는데 우리 원장 선생님의 마인드는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 원장 선생님은 '좀 안아 줘라, 그래도 아이들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다른 아이들 보기에 미안하니까 그 아이들은 자기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겠노 싶으니까 나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냥 왔어? 이렇게만 하지 안아주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 (중략) ... 내 아이는 방치되고, 그래서 내 아이는 다쳐도 그 부모에게 말도 못 하고. 그런 단점이 있지. 그럴 땐 참 힘 빠진다. 힘들었던 점, 아, 우리 0연이가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하데. '엄마, 엄마도 유치원 선생님 안 하고 다른 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왜? 했더니 '엄마가 다른 엄마들처럼 그냥 다른 일을 끝내놓고 집에 오면 친구들은 한 다섯 시나 여섯 시 되면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엄마들과 함께 친구들을 만나러 또 갈 수 있거든.' 그런데 내 아이들은 전혀 그러지를 못 하니까. 교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엄마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그거를 이제 물론 편하게 만날 수도 있는데 내 자체가 그걸 꺼리기 때문에. 만나지도 안 하니까. 그 점에 있어서 아이가 커 가니까 그런 말

을 하더라고.

그리고 '엄마가 나를 데리러 와 줬으면 좋겠어.' '유치원으로 데리러 와 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아빠도 유치원으로 데리러 와 줬으면 좋겠어.' 하는데 ... (중략) ... 데리러 갈 수 없다는 그런 단점도 있네. 여느 엄마들은 누구나가 대부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러지는 못 하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긴 있어.

(2016.11.26. 홍교사 인터뷰)

홍교사의 삶속에서 느끼는 속상한 마음과 학부모이면서 교사인 입장의 한숨이 드러난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경험하였던 엄마가 선생님이면 그 자녀는 자존감이 아주 높았던 것과 달리 홍교사의 자녀들은 혜택과 배려와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 받지 못하고 오히려 챙김 받지 못하고, 더 소외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다. 자녀들은 '엄마가 우리 유치원선생님' 이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감당해야 하는 일이 되어져 있고...

시키는 대로 해내야 하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도, 공장의 직공도, 가르치기만 하려는 교수자도, 계약직근로자 '을' 도 아닌, 그저 경력을 갖추고 보육현장을 지키는 교사로 살고 싶었다. 그러나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 보육교사의 '성장'은 권리주장을 하고 의견을 내고 예산을 축내는 골치 아픈 '혹'이다. 쓸모 있게 되면 쓸 데가 없어지는 자기 파괴적 직업이다(김희연 외, 2013).

그리고 엄마교사에게 '시간'이란? 가끔은 숨 쉴 시간조차 모자랄 정도의 혈떡임이기도 하다. 이교사와 홍교사의 일과에서 본 것처럼 모든 것이 가족과 자녀들 중심으로 정해져 있고, 우리의 개인시간은 오히려 근무를 하는 시간이며, 아이들이 잠들고 하루일과를 마치는 열두시

가 다되는 시간, 또는, 그 이후의 시간이다. 그 시간조차 여유롭게 집안 일을 한다던지, 미처 하지 못한 밀린 일을 하는 등, 진정한 개인을 위한 시간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중략)… 대부분 아빠의 출근은 운전 을 하여 직장으로 향하는 하나의 길이지만, 엄마의 출근은, 남편 챙기고, 자녀들 챙기고, 나는 대충 챙겨서 혈레벌떡 뛰쳐나가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다. …(중략)… 엄마교사의시간은, 기관과 기관의 아이들의 시간이고, 엄마의 시간은 거의 대부분이 가족을 위한 시간이다.

(2016.12.3. 연구자 일지 4.)

나는 어린이집에 있으니까 지금은 지금에 만족하는 편이고 그런데 가정어린이집도 호봉대로 책정했으면 좋겠지. 원장 선생님이 올해는 얼마 더 줄게요 해야지 그나마 돈을 조금더 받는 거니까 정확한 기준이 없잖아 애매~하게..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교사들이 서로 눈치 보며 다른 가정어린이집에도 일괄적으로 6만원씩 올려줬다던데 우리도 올려주나 궁금해 하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라 그리고 나는 시간제 교사로 늦게 출근하는 편이고 일찍 퇴근하니까 아이들 오기 전에 집에 먼저 가서 그런 점은 좋지. 호봉 인정은 하나도 안 되지만 그래서 어린이집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유치원으로 가고 싶기는 한데 내가 과연 다시 가서 할 수 있겠나 싶기도 하고 이제 연차도 너무 많은데다가 호봉도 높고 해서 뽑아 주거나 하겠나 싶고 부담스러운 존재지.

(2017.1.14. 이교사 인터뷰)

홍교사는 “우리나라에서 직장을 다니는 엄마는 슈퍼우먼이 되어야지”라고 말하며 가정과 일과 또 다양한 이름으로 살아가는 역할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드러낸다. 두 자녀를 데리고 유치원을 출, 퇴근 하며 겪게 되는 숨 쉴 시간조차 없을 만큼 바쁜 일상의 시작과 마무리가 소진과 체력의 고

갈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자녀들에게 까지 돌아보지 못하는 엄마의 관심은 ‘이런 부모를 만난 자녀의 몫’으로 남겨진다는 것은 이제 일곱 살, 여덟 살이 되는 아이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현실이지 않을까?

한 달에 절반 이상을 혼자서 두 자녀를 돌보는 이교사는, 여전히 유치원으로 돌아갈 꿈을 꾸고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에 부딪혀 올해도 ‘엄마라서 선택한 포기’로 자신을 위로 하며 지금 있는 자리에서의 자부심과 호봉도 책정되지 않는 적은 임금과 인정해 주지 않는 사회적 인식 등에도 불구하고, 일의 가중을 묻지 않고 소신껏 엄마 선생님이로 살아가려 애쓰고 또 힘 빠지고, 일어서고 또 희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지금 유보통합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라고 물으며 유치원으로의 재진입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현실에서 엄마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과 가정 사이의 역할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유치원을 퇴직하여야 한다는 부담감과 갈등,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교사는 약자의 식민성—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유아교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김희연 외, 2013). 엄마교사의 선택과 결정이 현실과 더불어 포기하거나, 선택으로 인한 심신적 몸살을 혼자서 모두 감당하여야 하는 일인 것은 아닐까?

결혼 후에도, 자녀를 가지고도 교사를 내 식구처럼 여기고,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탄생함을 축하하며, 결혼하는 교사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해하고 배려해 주려는 노력이(구자영 외, 2013) 존재한다면, 더불어 정책적 노력이 더하여진다면, 유치원에서의 퇴직과 이직을 하는 교사의 수는 훨씬 감소할 것이라 생각한다.

엄마교사로 살아가는 과중한 역할 부담이 과도한 정서적 긴장으로 이어져(Soderlund & Malterud, 2005), 직무스트레스에 그치지 않고, 교사의

장기간 휴직 및 퇴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력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유아교사들의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복지 제도와 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구자영 외, 2013).

원장님도 결혼을 안하신 터라 전체교사 열 네 다섯명 중에 엄마 선생님이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것은 유일하게 나 하나뿐이었기에 더 애써야했고, 더 신경이 쓰이는 일이었다.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이, 자녀가 함께 있다는 것이, 자녀들을 돌보아야하고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 보다 배 이상 더 애써야했고, 무리 했어야 했다. 그리고 미혼의 선생님들과 또, 자녀가 없는 선생님들과 똑같은 근무조건과 일과를 소화해 내어야했다. 내 자녀들은 같은 유치원 어딘가에 있다는 것 말고는 방치되었고, 일찍 출근하고 밤 늦게 퇴근하는 엄마와 늘 함께 무리하는 유치원 생활을 해야 했다. 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때 생각이 났다. 유치원교사로서의 자부심대 낮은 자존감. 엄마교사로서의 자부심대 더 자신을 채찍질하는 모습. 엄마교사의 자녀로 혜택보다는 더 손해 보듯 엄마를 보아도 지나쳐야하고, 다른 아이를 더 반가이안아주는 엄마의 모습. 이 교사가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보육과 교육에 대해고민하고 스스로 가지는 생각들과 마음중심과 달리 느껴지는 외부적인 시선들. 홍교사가 유치원에 근무하며 유명한 원장님의 교육방식과 유명한 유치원이기에 가지는 자부심과 유명세, 그리고 자녀는 다른 원아들보다 항상 다음이어야 하는 것. 엄마교사로 우리는 자부심이 있다.

반면, 유치원 또 어린이집 교사로 약간의 열등감 또한 있는 듯하다. 공립 유치원 교사와 다른 사회적 시선과 대우, 초. 중. 고등학교 교사와 다른 위치라는 느낌이 아주 많이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같은 교육과학부에서 관리하는 사립유치원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는 어린이집도 사회적 인식과 시선과 대우는 아주 다르며 복지 제도 또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유치원은 점점 제대로 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 따뜻한

엄마교사의 자리보다 젊고 매이는 것이 없고 자유로운 미혼 교사의 비율이 높아지고, 유보통합을 외치고 의논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어린이집은 점점 자격증을 남발하는 시스템으로 교사를 채우고 점점 보육의 모습으로 바뀌어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과 똑같이 교육하고 보육하며 돌봄을 실천하는 이교사나 나 같은 사람들도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아져 있지만, 실질적인 사회적 인식이나 인정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여전히 육아휴직이나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표면적으로는 확대시행하고 늘리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욱 줄어들고 교사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편이다.

사립유치원 교사, 국공립이든 법인이든 사립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어린이집 교사, 그곳에서의 자녀를 가진 엄마교사의 삶은, 사회인식적인 면에서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복지적인 혜택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보수도 그리 넉넉하지 않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는 자부심,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어린 시절 아이들에게 꿈과 사랑을 심어주는 퍼내고 퍼내어 내 자녀를 바라보고 키우듯이 나를 닮게 만들어서라도 소중한 어린 싹들을 아주아주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키워내고 자라게 물을 주는 그런 자리에서 뿌듯함을 가지고 감사하며 엄마 교사로서 살아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2016.12.17. 연구자 일지 5차.)

영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은 “아이들. 나. 환경. 그리고 나의 철학” 이 네 가지 영역을 염두에 두고 가르침과 돌봄을 실천할 것이다.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은 실천의 중심에 놓는 생각을 둘러싸고, 교육 정책, 사회 정책 그리고 심지어는 정부 법안까지도 다시 만드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가능하다(Goldstein, 2001).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날들을 기대하며...

결국엔, 여성으로서 사립유치원교사로, 어린이집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다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현재의 정책은, 배려나 엄마교사의 삶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기관 재정비와 교사의 재정비와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복지와 교사에 대한 정책이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바라며, 교사들도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길 희망해 본다.

(2017.1.14. 연구자 일지 7차)

현장에서의 외침은 다양하다. 그 중 교사들이 현장에서 복지와 정책을 향해 외치고, 사회적 인식의 보호아래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되고 수정되고 보완 되는 정책들과 기안들은 대부분 학부모 중심, 영유아 중심, 기관 중심이다. 그 어디에서도 현장의 실무자인 교사를 위한 정책의 변화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있다할지라도 대부분 국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금액적인 면을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교사는 ‘돈만 많이 주면, 돈만 더 올려주면’ 만족하며 힘을 얻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발화제일 수는 있겠으나 시간과 환경과 근무여건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안고 살아가고 있다. 기관과 학부모와 영유아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과 더불어 교사가 인정받고 배려받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영유아교육을 만들어 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직접 보육,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정책의 개선 발전을 기대하고 싶다.

VI.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두 교사의 교직생애를 통해 영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엄마교사들의 삶을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엄마교사로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근무하면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오늘날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교사들의 어려움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엄마교사로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엄마교사의 삶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사교육 및 교사정책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연구 문제에 따라 두 교사의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관련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두 교사가 이야기 하는 엄마교사의 교직생애

두 교사의 생애사를 통해 자녀가 있는 기혼 영유아교사는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며 퇴직하고, 이직하고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어려움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서 내가 아닌 가족과 자녀를 위한 선택과 결정을 반복하며 영유아교사로서의 숙명적인 삶을 받아들 듯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두 교사가 이야기 하는 엄마 영유아교사의 삶은, 영유아교사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처럼 느껴지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인 듯 느끼고 있다. 인정받지 못하고 혜택 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그렇다.

두 교사의 삶의 궤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홍교사는 ‘보모’의 이미지로 시작했던 유치원교사생활이 점점 유아교육 기관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결혼을 한 후, 한 유치원에서 10년의 생활을 뒤로 하고, 유산, 몸과 마음의 소진을 경험하며 퇴직을 결정하게 된다. 연년생 자녀를 키우며 재진입을 시도하고 자녀를 데리고 출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두 번의 이직을 경험하였다. 현재 두 자녀를 데리고 사립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며 정책은 정책 기안자들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영유아교사들의 소리를 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엄마교사로 사랑과 열정을 다하고 있다.

이교사는 어려서부터 되고 싶었던 유아교사의 길은 그저 어렵고 힘들긴 했지만, 보람과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게 해 주었다. 그러나 한 유아교육 기관에서 최선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헌신한 10년의 시간은 결혼과 임신과 더불어 ‘거절’과 자녀양육을 위한 퇴직으로 남게 되었다. 자녀양육을 위하여 원감연수를 포기하였고, 지금은 유치원으로의 복직을 포기하였다. 무리한 재진입 시도는 유산이라는 상처를 남겼고, 이교사는 남편의 잦은 출장으로 혼자서 거의 모든 양육을 감당하고 있다. 매년 유치원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유치원으로의 재진입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자녀의 요구에 따라 접어두기도 하며 시간제 교사로 가정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포기한 자신도, 자녀를 위해 선택한 자신도 칭찬하며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홍교사와 이교사의 공통점은 첫 번째,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며 오랫동안 몸담았던 유치원에서 퇴직과 이직의 극단적 결정의 갈등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몸과 마음의 소진으로 인해 유산을 경험하고 몸과 마음의 아픔과 힘들어 휴직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

째, 이직의 과정에서 자녀의 거취를 고민하고 자녀와 함께 다니며 근무하는 것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결국은 자신의 야망이나 꿈보다 자녀와 함께 근무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일을 선택하여 ‘나’의 발전과 자기 개발의 길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다섯 번째, 어렵고 힘든 현실과 바쁜 삶속에서도 감사한다. 그리고 정책의 개선과 교사의 목소리가 교육 현실에 반영되길 희망하고 있다. 두 교사는 나름대로 극복하려는 전략을 가지며 갈망하고 더 나은 '나'를 위해 엄마교사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지향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임부연 외, 2006).

두 교사의 교직생애에서 홍교사는 결혼과 임신을 하면 당연히 퇴직하거나 이직하여야 하는 유아교육기관의 현실을 인정하며 퇴직을 스스로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홍교사와 달리, 이교사는 임신하고 출산 후에도 10년간 근무했던 유아교육기관에서 전문가로서 더욱 성장해 가길 기대하며 자기발전과 자녀양육을 모두 선택하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기관의 결정에 의해 포기해야만 했다. 홍교사는 자녀를 부모의 의지와 현실에 따라 ‘이런 부모를 만났기에’ 순응하며 살아야한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삶의 당연성으로 인정하며 현실을 초월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교사는 자녀를 위해 엄마의 자리를 자처하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포기하며 자녀를 위한 길을 선택하고 있다. 그 안에서 점점 많아지는 나이와 높은 호봉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재진입과 재성장을 꿈꾸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정책적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나. 두 교사가 이야기 하는 엄마 교사로 살아가는 어려움의 의미

엄마교사로 살아가는 두 교사가 이야기하는 어려움이 주는 질문들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홍교사와 이교사에게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엄마교사는 3D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구자영 등(2013)은 같은 교직에 근무하는 여교사라 할 지라도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초, 중,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 비해 결혼과 직장생활을 함께 수행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립유치원에서 교사의 결혼 및 출산이 가장 큰 퇴직 및 해임 사유로 꼽히고 있다(고미경 외, 2006). 결혼하고 임신한 교사는 근무가 어렵다고 여기는 편견에 교사 스스로가 체념해 버리는 낮은 직업의식이 있다(차주경, 이경화, 2011). 홍교사와 이교사는 결혼과 임신, 유산, 이직 및 퇴직을 경험함에 있어 3D직종이라는 이런 낮은 직업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홍교사와 이교사는 사회적 기대와 편견으로 뒤틀려진 여성의 모습이 투영된 영유아교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임부연, 최혜림, 2006).

둘째, 홍교사와 이교사가 경험하는 엄마교사로서의 어려움은 침묵을 강요당하는데 있었다. 임부연 등(2006)은 여성성은 기혼이기 때문에 '이미 되어버린 여성', '불모잡힌 여성'으로 차별받고 억압받고 있었다. 자신의 직업을 전문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가지는 여성적 이미지를 상실해 가는 것과 함께 교사로서 생명감을 함께 상실해 간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임부연 외, 2006).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는 미혼 이어야하고, 매이는 것이 없어야 환영받는다. 생명과 배려의 여성이 엄마교사로서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교직 생애에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선택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하여 자녀를 키우는 일은 나의 일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홍교사와 이교사의 생애를 보면서도 이런 여성성이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홍교사와 이교사는 영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엄마교사들은 엄마와 교사의 경계에 서있음을 드러내주었다. 교사가 임신을 하는 것도 유아교육현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원장과 동료 교사의 눈치를 보느라 엄

마가 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다(구자영 외, 2013). 홍교사의 경우도 임신을 하였으나 무리한 일과와 심신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산을 경험하며 퇴직하였고, 이교사도 무리한 이직시도로 인해 유산을 경험하였다. 엄마교사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가정에서의 ‘엄마, 아내’라는 이름과 기관에서의 ‘기혼교사’ 그리고, 다른 교사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복지와 보장을 받지 못하고 배려 받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곤과 자존감의 문제로 이어지는 소진의 문제가 외적, 내적 갈등을 일으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요인이 된다. 남자들에 비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통계청, 2016)과 만혼 및 늦은 출산으로 양육 부담이 큰 영유아 자녀를 둔 30대 초·중반의 여성에게서 경력 단절이 나타나는 M-Curve현상(고용 노동부, 2013)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의 경험이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여성 경력 단절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는 것이(유계숙, 2012) 한국 여성 연구의 단면이다. 엄마교사로 역할하며 기관에서 인정받고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내 자녀에게 까지 쏟아낼 에너지가 없는 이중부담이 존재한다.

넷째, 홍교사와 이교사는 영유아교사연구와 영유아교사에 관한 정책담론에서 ‘엄마교사’가 소외되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희망하고 꿈꾸고 엄마교사로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여도 정책적 문제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답답하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장의 소리를 외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고민과 고통을 소리쳐도 정책의 반영에까지는 너무 작은 외침으로 들린다는 것이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릴 수는 없지만, 바위를 물들일 수는 있다는 기대감으로 ‘여성’인 엄마교사들의 목소리를 드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 여성이 여성이기에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가지고 존재함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

가는 세상을 꿈꾼다. 교사양성 및 현직교육에서 유치원 교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유아교육 현장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는 관점을 키울 필요가 있다(이경화, 차주경, 2011). 엄마교사에 대한 복지 정책이 엄마교사로서 살아가는 지원이 되고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홍교사나 이교사와 같은 영유아교육기관의 엄마교사들은 존재에 대한 개인 내적 갈등과 사회적 인식부족과 복지 결여 등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감과 감당해야 할 것이 많은 다중 역할수행으로 인한 소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이교사와 홍교사의 어려움을 통해 영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엄마교사들의 삶에 관해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다시 떠올려 볼만하다.

첫째,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일로 인식하기에 엄마인 여성이 교사의 직업을 병행함으로 스트레스와 소진을 경험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유아교육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일이었다. 어머니인 동시에 교사가 되는 것에 내재해 있는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사랑과 교사로서의 사랑의 특성이 있다(Goldstein, 2001). 교사의 사랑과 달리, 어머니의 사랑은 무한하다. 그리고 더구나 Sara Ruddick(1987, p.246)이 말하듯, “모성적 사랑은… 사실, 그것이 애로틱하며, 노여움과 분리할 수 없고 격렬하며 그리고 애매모호함으로 충만할 때 부드럽고 무조건적이라고들 이야기 한다.” 교사로서의 사랑과는 달리, “어머니로서의 사랑은 얕혀져 있으며, 깊고, 강렬하고, 복잡하다.” (Goldstein, 2001, p. 190). 여성들은 양육적이고, 친절하며, 상냥하다. 착한 소녀들은 불편하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저항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장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전형적인 생각에 가장 확실히 갇히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자주 실제 생활로부터의 이미지로 강화된다.

유아교육 전문가는 착한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이다. 많은 유아 교사들이 상냥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은 또한 생각하는 존재이며 눈치 빠른 전문가들이다. 유아들을 가르치는 것은 가슴과 손뿐 아니라 머리에 의존하는 도전적이고 지적인 일이다(Goldstein, 2001).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의해 그동안 여성의 몫으로 여겨왔던 양육의 기능이 가정이 아닌 기관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 주체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임정희 외, 2016). 엄마가 된 여성이 직장을 다니고, 엄마가 된 여성이 엄마교사로 재직을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아직은 일-가정 양립의 갈등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엄마됨’의 과정은 몸의 지각과 감응을 통한 새로운 경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정경수 외, 2016).

둘째, 엄마교사들이 자녀를 위한 포기과 현실의 삶에서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면서도 수용적이며 긍정적인 미래를 꿈꾼다는 점 또한 상기해야 한다. 두 교사는 여러 번의 선택과 결정을 경험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몸소 감당하며 ‘포기’라는 단어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양육에 있어 헌신과 배려를 통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영유아교육기관의 엄마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가정과, 기관과, 사회적 인식과 엄마교사 자신의 내적 갈등에서 존재한다. 교사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은 모두 높은 수준의 에너지가 요구되는 역할이다(임정희, 최형성, 2016). 엄마가 된 유아교사들의 경험을 통해 그 경험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개별 유아들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엄마됨의 경험을 통해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부모의 입장과 아이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부모, 교사직에 대한 확대된 이해를 갖게 되었으며 사회적 가치, 지식, 수업이라는 남성성을 부드러움, 자연스러움, 생활, 삶의 여성성으로 품는 이성과 감성의 조화된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정경수 외, 2016).

헌신은 솔직하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으로 하는 어머니 노릇과 가르치는 일 모두에 결정적인 부분이다(Goldstein, 2001:201). 성인-아동의 사랑의 관계를 수영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머니로서의 사랑은 깊은 끝에서 평생 하는 수영인 반면, 교사로서의 사랑은 단지 얕은 물에 짧게 담그는 것이다. 어머니로서의 사랑처럼 교사로서의 사랑은 친밀, 헌신, 그리고 열정에 의존한다. 엄마교사는 엄마의 마음과 교사의 마음을 동시에 가진 헌신적이며 갈등에 대해 수용적이며 긍정적 에너지를 가진 열정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결론

본 연구는 자녀를 둔 영유아교사의 교직생애를 통해 엄마교사로 살아가는 어려움의 의미와 엄마교사의 삶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사교육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 자녀가 있는 기혼 영유아교사의 생애는 교사로서의 자존감과 더불어 엄마로서의 책임감, 같은 존재이지만 다른 존재처럼 느껴지는 위치와 현실에 대한 고민과 갈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영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엄마교사들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자아의지와 생활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과 사회적 배려로부터 소외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엄마교사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처우와 복지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엄마교사의 삶을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엄마교사들이 원숙한 전문가로서 영유아교육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

사교육적 지원 또한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엄마교사들 자신들의 교직생애를 되돌아보는데서 시작되었다. 홍교사와 이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의미를 해석하면서, 영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엄마교사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가야 할 것인지 성찰해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꿈꾸는 엄마교사들의 삶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홍교사, 이교사와 함께 한 여정이 연구자에게 준 의미이다.



참고문헌

- 장이수(2013). 여성주의 연구를 돌아보다: 여성운동 , 노동 , 가족 연구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00, 229-250.
- 곽선화, 이은령(2011). 직장 가정 갈등과 업무 재량권, 직무만족, 경력 만족 및 이직의도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 **여성학연구**, 21(3), 65-100.
- 고미경, 류숙희, 나정(2006). 유치원 교사 근무 여건과 전문성 향상 요구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1(3), 251-284.
- 구자영, 이대균(2013). 유아교육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결혼과 임신, 출산으로 겪는 어려움.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2), 295-324.
- 김대옥, 김낙홍(2015). 생애 관점에서 본 한 사립유치원 원장의 정체성. **유아교육학논집**, 19(3), 143-167.
- 김보성, 김향수, 안미선(2015). 소비자본주의 시대의 ‘엄마 노릇’ 『엄마의 탄생:대한민국에서 엄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페미니즘연구**, 15(2), 321-328.
- 김성숙, 임부연 (2012). 하이데거 예술철학의 유아교육적 함의: 「예술작품의 근원」 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7(2), 301-321.
- 김영천, 한광웅(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 생애사 연구의 성격과 의의. **교육문화 연구**, 18(3), 5-43.
- 김영천(2004). 교사의 삶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연구 동향과 예들. **열린교육연구**, 12(2), 79-105.
- 김윤이 (2015). 중년 기혼 여성이 갖는 보육교사로서의 경험의 의미. 중

- 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숙(2011). 어린이집 교사의 삶에 대한 자전적 탐구 = An autobiographical study about the life of a nursery teacher, 서울 :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정신, 박성미(2007). 보육교사의 역할인식과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1(1), 133-155.
- 김정화(2014).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의 생애사를 통해 본 유아교육자의 삶.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구(2001). 가르침의 의미회복과 타자의 존재 가능성. **중등우리교육**, 117-121.
- 김지영(2016). 학습 생애사 사례연구-세 할머니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학위논문.
- 김진선(2012). 유아교육.보육전공자의 자녀양육 체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보육학회지**, 12(2), 121-145.
- 김현정, 오정아(2014). 여성잡지에 나타난 어머니상에 관한연구 동향 분석- ‘문명개화의 대상’ 에서 ‘프로슈머 어머니’ 까지 현모양처상의 변화. **여성학연구**, 24(3), 135-171.
- 김혜정(2011). 일 · 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젠더 비평적 분석- 모성보호제도와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 **여성학연구**, 21(2), 113-152.
- 김희연(2004). 실행연구자(action researcher)로서의 유아교사: 유아교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일고. **유아교육연구**, 24(6), 235-255.
- 김희연, 김은숙(2013). 어린이집 교사의 생애사 연구: 김교사 이야기. **교류인류학연구**, 16(1), 25-63.
- 민성은, 김영천, 정정훈(2015). 생애사 연구를 위한 효과적인 자료 분석 방법 탐구. **교사교육연구**, 54(4), 621-638.

- 박병락 (2000). 푸코의 권력과 주체문제의 교육적 논의. **교육철학**, 18, 73-89.
- 박선희(2014). 일화기록에 대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이야기.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희 저(2004).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생애사(Biography research) 연구를 중심으로**. 도서출판 원미사.
- 박소영(2009). 보육교사로 살아가는 힘에 관한 이야기-10년 이상 경력교사들의 이야기-.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은주(2008). 질적 연구의 최근 동향과 그 의미. **교육인류학연구**, 11(2), 1-27.
- 서동미, 전우경, 엄은나 (2008). 교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본 ‘좋은 교사’의 의미 탐색. **유아교육연구**, 12(2), 261-303.
- 손경미(2006). 일에 대한 태도와 성별차이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16(1), 57-79.
- 송미선(2014). 유아교사의 행복 관련 연구의 동향분석. **어린이미디어연구**, 13(3), 149-169.
- 심숙영(1999). 유아교사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분석. **유아교육연구**, 19(2), 5-20.
- 심은주, 이경화(2015). 쿠레레를 통해 본 두 명의 사립유치원 교사의 삶. **한국교원교육연구**, 32(3), 327-355.
- 안경주(2013). 대학생 자녀가 쓰는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본 여성의 노동·모성 그리고 가족: 페미니즘 페다고지의 적용을 시도하며. **아시아여성연구**, 52(2), 175-214.
- 안유리, 여인우, 신주은, 이대균(2013).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직 한 교사들의 이야기. **어린이미디어연구**, 12(2), 47-71.

- 염미경(2007). 여성 연구의 동향과 방법론. **현대사회과학연구**, 10, 191-219.
- 염지숙(2005). 유아교육현장에서 돌봄의 실천과 한계. **유아교육연구**, 25(5), 147-171.
- 오명숙, 조희숙 (2009). 유아교사의 어머니됨과 유아돌봄 행위. **교사교육연구**, 48(1), 29-51.
- 유계숙(2012).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1), 111-125.
- 윤은주(2002). 정을 ‘위한’ 교육: 페미니즘적 유아교육의 한방향. **유아교육연구**, 22(4), 189-200.
- 윤택림 (2010). 여성은 스스로 말할 수 있는가: 여성 구술 생애사 연구의 쟁점과 방법론적 논의. **여성학논집**, 27(2), 77-111.
- 이경화, 손유진(2014). 유아교사들이 인식한 ‘가르침의 순간’의 의미분석. **유아교육연구**, 34(3), 175-196
- 이경화, 심은주(2013). 유아교사의 영성과 직무 만족 및 직장 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8(3), 179-199.
- 이남희(2014). 경력단절 여성의 자기서사로서의 페미니즘 고전 읽기. **페미니즘연구**, 15(1), 337-351.
- 이동성(2013). 생애사 연구동향의 방법론적 검토: 세가지 방법적 이슈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16(2), 47-82.
- 이동성, 김영천(2014). 생애사(life history) 연구에서의 일곱 가지 글쓰기 전략. **초등교육연구**, 27(4), 77-103.
- 이민선(2015). 기혼보육교사의 다중역할갈등과 심리적 소진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미, 방지은(2015).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3), 83-104.
- 이숙정(2011). 기혼여성의 직장-가정 갈등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감성리더십의 매개효과 검증. **여성학연구**, 21(2), 81-112.
- 이준영(2004). **동양학 총서(4) 소학(小學)**. 서울: 자유문고.
- 이지영, 문혁준(2015). 기혼영아보육교사의 교직전문성 인식, 일과 가정의
양립갈등, 소진, 자아탄력성이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
보육학회지**, 92, 103-125.
- 임부연, 최혜림(2006). 유아교사의 여성성 탐구: 돌봄과 해방의 담론 아이
러니. **유아교육 연구**, 26(5), 119-143.
- 임정희, 최형성 (2016). 기혼 유자녀 유아교사 대상 연구의 동향 분석. **여
성연구논집**, 27, 77-92.
- 임해은, 권연희(2015). 사립유치원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직무스트
레스와 회복탄력성의 영향. **인문학논총**, 37, 53-80.
- 전병주, 윤경미(2014).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조직
건강의 조절효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 14(11), 260-271.
- 전지형(2015). 유아교사 인사관리에 대한 원장과 교사의 이야기. **유아교
육연구**, 35(6), 397-419.
- 정경수, 임부연, 김경애(2016). 엄마됨을 경험한 유아교사들의 이야기. **학
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6), 619-643.
- 정혜영, 이경화(2014). 사립유치원 교사의 이직 의도에 미치는 사회적 지
지와 우울 및 소진의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8(3), 159-181.
- 정혜영, 손유진(2015).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유아교사 연구동향
분석. **생태유아교육연구**, 14(2), 283-308.
- 조선정(2014). 페미니즘과 문화연구의 만남 『다시 보는 미디어와 젠더』.

- 아시아여성연구, 53(1), 201-210.
- 조애리, 김진옥(2016). 들뢰즈와 가타리의 여성-되기와 전복성. **페미니즘 연구**, 16(1), 265-284.
- 조용환(1999).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교육인류학연구**, 2(1), 91-121.
- 조형남(2004). 소학(小學)(자랑스러운 자녀로 키우는 가르침). 자유문고.
- 조환이, 윤선아(2014). 교사소진 연구 동향 분석. **뇌교육연구**, 13(3), 77-100.
- 차주경, 이경화(2011).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이직 이야기. **직업교육연구**, 30(3), 405-426.
- 최순영(2015). 니체연구. **한국니체학회**, 28, 125-153.
- 최순영(2015). 니체 여성론의 모호성에 대한 해석. **한국니체학회연구**, 28, 125-153.
- 최영신(1999). 질적 자료 수집: 생애사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 연구**, 2(2), 1-22.
- 하지수(2017). 사립유치원 교사의 퇴직과 복직 경험.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유진, 최인숙, 이대균(2015). 어린이집에서 10년이상 장기근속한 보육 교사들의 이야기. **어린이 문학교육연구**, 16(2), 563-591.
- 한혜정(2009). 한국 교사교육에의 적용을 위한 자서전적 방법의 이론적 기초 탐색. **교육과정연구**, 27(1), 21-40.
- 허숙민, 최원석(2014). 기혼 직장여성의 삶의 질 경로에 관한 연구- 경북 경산시를 중심으로 -. **여성학연구**, 24(1), 63-93.
- 홍석영(2012). 어린이집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사교육연구**, 51(2),

271-281.

홍예림(2015). 유아교사의 복직이야기.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황정미(2007). 여성 사회권의 담론적 구성과 아내·어머니·노동자 지위. **페미니즘연구**, 7(1), 13-54.

황지애, 김성재(2015). 유아교사들의 삶의 질에 관한 실태분석: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0(4), 221-244.

황해익, 김미진, 김병만(2012).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유아교사의 이미지 연구. **한국아동학회**, 33(5), 201-219.

Gilbert Highet.(2009). **가르침의 예술**. 서울: 도서출판 아침이슬.

Lisa S. Goldstein.(2001). **사랑으로 가르치기:유아교육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 (염지숙 역, Teaching with Love:A Feminist Approach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서울: 창지사. (원본 1997 출간).

부 록

◆ 연구 참여 동의서 ◆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본 ‘엄마교사’의 삶³⁾
- 자녀가 있는 영유아교사의 교직생애를 중심으로 -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지도교수: 이 경 화 연구자: 이 황 순

<연구목적 및 과정>

- 본 연구는 자녀가 있는 기혼 영유아교사의 생애사 분석을 통해 영유아교사의 삶을 이해하고 교사교육의 실천적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본 연구의 참여자 신상은 철저히 보호되며 연구보고서에는 익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 본 연구는 약 10주간의 개별 및 집단면담을 통해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수집할 것으로, 면담내용은 녹음·전사하여 분석될 것입니다.
-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종료 후에는 전수 폐기하겠습니다.
- 면담을 하는 동안 참여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_____은(는) 위의 연구목적 및 과정을 숙지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구 참여자 (인)

2016년 월 일

연구자 연락처: 이황순 (휴대전화: 000-000-000)

3) 연구제목은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에서 변경되었음.

감사의 글

“논문을 쓰는 일은 스무고개 넘기와 같습니다.” 하고 시작한 석사논문이 완성되었습니다. 2015년 겨울 수업 중에 영감을 얻고, 주제를 정하고 연구해 보고 싶다며 시작한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그 한 고개 한 고개 넘기가 어찌나 어렵던지 여전히 한 고개조차도 넘지 못 한 듯한 제자리걸음에 실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내 디딜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 이경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엄청난 일정들과 일과 중에도 논문지도를 틈틈이 해주시고, 주제와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해 주시는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이르지 못했을 길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족하여 죄송했고, 근무를 하며 학위 논문을 쓰는 바쁨도 교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대학원 학기동안 가르침을 주셨던 교수님들과 논문을 꼼꼼히 읽어 주시고 접어서 표시해 주시며 자세히 심사해주신 권연희 교수님과 황희숙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동기로 응원해 주며 대표라고 더 잘 도와주고 함께 했던 2015학번 선생님들과 논문 발표하기까지 함께 걸어온 최고은 선생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옆에서 응원해준 공남희 선생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좋은 논문 쓰길 바라고 잘 할 거라며 격려해주시고, 오래 달리기이니 체력관리 잘 해야 한다고 늘 응원해 주신 장재현 목사님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선생님’ 인 엄마를 기다려주고 응원해 주고 옆에서 늘 도와준 은이와 민이에게 고맙고, 낮의 근무와 밤의 컴퓨터 앞의 작업으로 늘 피곤해 있는 아내를 배려해준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안기고 매달리며 “선생님! 잘 다녀오세요” 사랑 표현하는 숲누리반 아이들과 배려해 준 동료 선생님들, 연구의 기나긴 여정을 흔쾌히 함께 해준 오랜 친구, 홍선생님과 이선생님께도 마음 깊이 감사를 전합니다. 이 모든 분들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논문이 되기를 바랍니다.